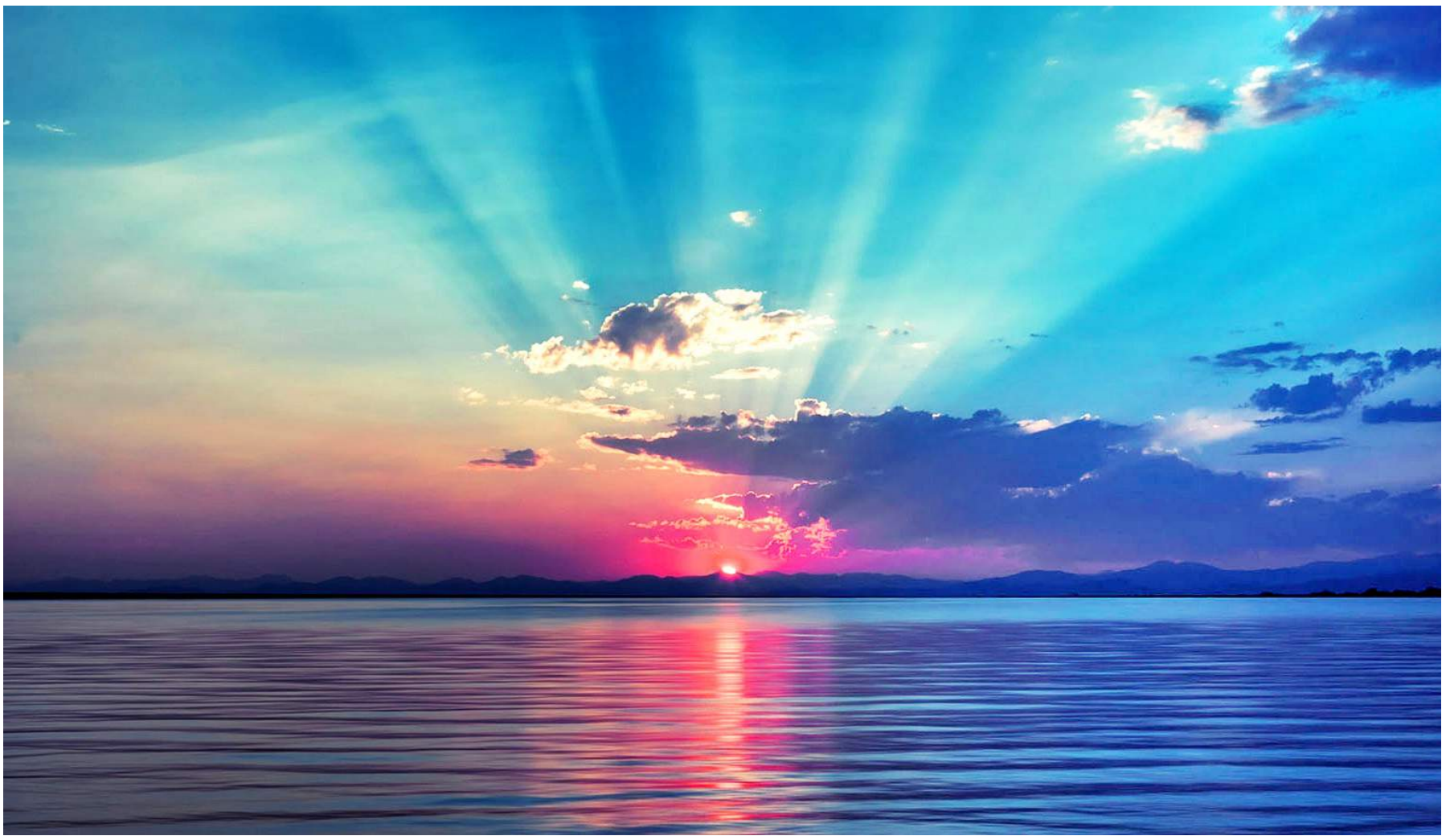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제261호 | 2016년 1월
www.snuaa.org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 Tel: 484-344-5500 Fax: 484-342-0222 | 발행인: 손재옥 편집인: 김정현



희망찬 새해를…

새해에는 여러 동문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새 희망과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이란 내일이 있다는 기대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분들은 누구에게나 오는 내일이 올 수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는 잠언의 교훈을 새해에 생각해 봅니다. 미주 동창회가 있음으로 동문들이 서로가 가까와지며 서로에게서 인격을 배우고 아름다운 조직을 이루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논쟁보다 경청함이, 질책보다 용서와 격려로 서로를 미소 짓게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충만한 2016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 13대가 미주총동창회 일을 시작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에 비해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동창회 사무실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주총동창회란 거대한 배를 튼튼하게 만들어 먼 항해를 하려고 엔진을 재정비하며 프로펠러를 더 달고 있습니다.

회원 6,200명의 동창회가 45% 즉 2,790명이 회비를 내주시면 연간 $209,000란 수입이 생기고 회보 발간과 회원 및 지부 관리를 위한 사무직 그리고 Brain Network를 하기 위한 자급자족이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회비를 보내신 분들은 8%, 498명으로 $37,350이 회비 납부 총액입니다. 전회기에서는 15%의 저조한 회비 참여로 부족한 자금을 회장님들과 몇분의 뜻을 같이 하시는 동문님들의 후원과 희생으로 미주총동창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혹자는 명예직인 회장이 다 감수해야 한다고 책임을 거론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직분을 마칠 때 쯤이면 서울대 미주총동창회가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조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13대의 회장과 임원단의 희생과 후원이 이 걸음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동창회 운영을 전산화 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모든 자료가 Access란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어서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동창회보에 기사를 내신 분들의 기사 내용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회비나 후원금을 내신 분들의 내용도 Quickbooks란 회계 프로그램으로 수입과 지출을 언제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곳까지 오느라고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행히도 전자기술의 발전으로 어디서나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니 신속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뉴욕 지부, 남가주 지부, 그리고 조지아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참석했는데 오히려 미주총동창회의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지부들도 있었습니다. 6,300부의 회보가 한국으로 미국 전 지역으로 배부되고 있으니 그동안 개인적으로 격려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내용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내보내라고 당부하시는 동문님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미주동창회의 미래가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의 평의원회는 6월 25일 토요일에 그리고 하루 전날 24일 금요일에는 Brain Network를 필라델피아에서 할 예정입니다. 동문님들의 회비 납부 편의를 위해 1월호에 회비와 후원금 납부를 위한 봉투를 첨부하였습니다. 먼 하와이와 알래스카 동문님들께서도 회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손재옥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95

Inside

본 회보에 게재된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취재기사 및 동문글은 본 회보가 Copy Right을 갖습니다.

1-2 신년사: 회장/논설위원장/주필
3 논설/경제칼럼/12대 결산보고
4 제안: 대통령 명칭
5 모교소식: 대나무숲/죽창/50억 쾌척
6 모교소식: 수시합격자/김빛내리 교수
7 미주뉴스: 유엔/필라여성회/서재필재단
8-9 *My Story & Your History*
10-11 지부: 하와이/북가주/조지아/록키/남가주
12-13 지부: 뉴욕/시카고/장학금 감사
14 컴도저 임광수 회장/게시판
15 장기간호 경제학/A+ 받으려면
16-17 지부회장들의 신년인사
18 건강칼럼: 김동규/김철우 교수
19-20 시/사자성어/옥고를/상속법
21 청년, 세계 무대에/새단어 Ze
22 치세리의 그림 esse homo
23 1000년 후의 인간
24 신간: 이태상/백순 / 영화: 내일을 향해
25 이달의 사진/교수 연봉
26 꽁트: 나를 향해 빛나는 별

[신년사]

차기 미국대통령의 자격 조건

이항열 (법대 57)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미국에서는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금년 차기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고 있다. 벌써부터 공화당에서는 15명의 대선후보자가 출마하고 민주당에서는 3명 후보자들이 예비선거(Primary)에 격전을 벌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반정부, 반 워싱톤 정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이민, 경제, 테러리스트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국내정치만 아니라 세계정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중요한 선거이다. 특히 이곳에 영주하고 시민이 된 많은 우리 동문들에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 대선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하며 우리 미국 생활에 '영향'이 올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전에서는 우리 이민자에게 직접 관계되는 이민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반이민자 정책을 발표함으로서 우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 공화당의 반이민자들의 정책때문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많은 히스패닉 계통의 미국인들은 70%가 민주당 후보에 지지투표를 하였으며 아시아계통 미국 시민자들 거진 72%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지투표를 하였다. 한국계의 미국 시민들도 2008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통계를 보면 62% 정도가 민주당 후보에게 찬성투표를 하였다.

그러면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가?

1970년도 미국 정치학자 James David Barber 는 대통령의 중요한 자격심사는 성격(Character)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이상적인 대통령의 성격은 긍정적(Positive)이며 적극적(Active), 활동적인 성격이라고 하였다. 역사적인 이상적 성격의 대통령으로서 그는 워싱톤, 루즈벨트, 트루먼 등을 거론하였다. 그 반대로 성격이 부정적(Negative)이며 적극적인 대통령들은 대개 그들의 성격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닉슨, 린돈 존슨, 허버트 후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예로 들었다. 실패한 대통령들은 대개 타협을 잘못하는 경직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며 자기들의 직무에 좌절감을 느끼며 성격이 밝지 못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바버 교수 학설이 모든 경우에 맞는다고 할 수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그들의 성격과 성실성을 중요시하여야 된다고 본다. 더 세분적인 분석을 하여보면 좋은 성실한 인품과 좋은 성격 이외에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자기 주장만 옳다는 독선자(Dogma)나 비타협자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즉 민주주의 대다수를 융합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국민 여론을 백안시하며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서 타협을 모르는 지도자가 훌륭한 대통령이 된 예는 무척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대다수 국민을 화합과 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온건한 중도주의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

자기의 주장과 이념에 따라 극우나 극좌로 치닫는 지도자는 국민을 양극화하게 되며 국민들도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들을 적대시 하게 되며 서로 비난하는 사회가 형성되게 한다. 현재 미국 정치가 잘 안되는 이유는 자기 주장, 자기 종교, 자기 정치적 이념만이 옳다는 정치 환경때문에 정치가 양극화 되어있고 국회에서도 양당이 서로 다투기만하며 툭하면 정부를 폐쇄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극단 주의자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자 출마자들 가운데도 "Moslem 신봉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든가, 헌법 14조 수정안에 있는 "미국에서 출생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반대한다라든가,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인 미국에서 반이민자 감정을 부추기는 등, 투표자들을 선동하는 출마자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우려가 된다. 또한 자기만이 가장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이상기온도 믿지 않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과학을 무시하는 종교는 사물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고 중세의 법황처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위대한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경고하였듯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우리가 주시하는 많은 혼란의 중동(Middle East)국가처럼 전락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위대한 대통령으로 워싱톤, 링컨,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고 있는데 세 분의 대통령들은 다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링컨과 루즈벨트는 반대 의견의 지도자들과 반대당 지도자들을 각료로 임명하였다. 또한 세 대통령들은 다 설득력이 강하였으며 언론을 적대시 하지 않았다. 잘못된 정책은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Buck stops here) 라는 좌우명을 썼던 트루먼 대통령처럼 그들은 책임감과 지도력도 출중하였다. 민주주의에서 제도적 확립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지도자의 자질과 성품, 인격,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대통령 출마자들의 자질을 볼 때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끝으로 한가지 더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한인 계통의 미국인들이 다른 아시아계통의 이민자들보다 미국정치 참여 투표율이 대단히 저조한데 이민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는 이번 선거에서는 우리들의 참여율이 높게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우리 재미 한인 사회와 후손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정치적 영향에 좌우될 것이며 정치적 영향은 정치 참여율에 좌우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싶다.

〈논설위원장, Shepherd 대학 전 석좌 교수〉

[신년사]

"높이 날아 멀리 보자"

정홍택 (상대 61)

희 망 의 새해가 밝았다.

〈새해〉라는 단어 앞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애써 붙여 보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마음에는 먹구름이 무겁게 덮힌다. 이 시대를 우리 후세들은 어떻게 정의할까? 종교 전쟁의 시대? 테러의 시대?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미움에 찬 총성 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가 여명(黎明)이 가장 가까운 때라고 하니 한 번 높이 떠 올라 시대를 조망해 보면 무언가 보일 것도 같다. 문득 머리에 떠 오른 것이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다. 서가에서 이 책을 꺼내 마음을 가다듬으며 다시 읽어 보았다.

갈매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 그날 먹고 사는 일이다. 나는 일(Flying)은 단지 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런데 죠나단 리빙스턴이라는 갈매기는 먹는 일 보다도 나는 일이 더 좋았다. 높이 높이 떠올라서 내려다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던 것들, 이를테면 어부들이 던지는 죽은 생선 미끼 중 '누가 더 큰 덩어리를 차지하느냐'가 얼마나 소소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다. 조금만 더 깊은 바다로 가면 살아있는 생선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저 산 위로 날면 별미의 곤충 맛도 볼 수 있을텐데….

위로 올라와 보니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다.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갈매기들은 수 천년이 지나도 언제나 똑같은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높은 곳에서는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움직이고 있고 또한 현재가 만들어 가는 미래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다.**

나는 책을 덮고 지금 우리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각자가 한국이라는 좁은 반도에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한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가 아니었을까? 각자의 꿈을 안고 높이 날아 태평양을 건너 여기 미국땅에 정착했다. 이제 먹고 사는 일은 그런대로 해결되었다 해도, 태평양 하늘에서 꾸었던 꿈은 이루어진 것인가? 이루지 못했다면 그 꿈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 주고 있는가?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우리의 반응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결실이고 또한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12년 미국의 한 공장에서 세계를 변화시킬 대사건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포드(Ford)라는 사람이 대중차를 만들기 위해 분업을 고안하고 콘베이어 벨트(Conveyer Belt)를 노동자 앞에 설치했다. 생산은 수십배 상승했지만, 노동자들은 노동의 의미와 기쁨을 잃었고 돈(봉급) 몇푼 받고 살아가는 기계의 일부로 전락하고 말았다. 기업가들에게 생산성은 최고의 가치가 되어 과학을 경쟁적으로 발전시켰다. 기계와 로봇이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내 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00년 후, 전 세계 부(富)의 절반(50%)을 상위 1%가 차지하게 되었다. (NGO 옥스팜 2015년 보고서).

한국의 역사를 높은 곳에서 조감할 때 통일(統一)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흐름을 감지해 본다. 김유신의 삼국통일 후, 신라는 문화적으로는 크게 융성했을지 모르지만, 패전국인 백제 고구려 유민(遺民)들에게는 승전국으로서의 포용적 정치를 펴는데 인색했다. 서쪽(호남)과 이북 국민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후기신라, 고려, 조선조까지 1500년을 꽤 뚫었다. 그 결과 이북민들의 설움은 해방 후 북한(北韓)을 배태(胚胎)하게 했고,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의 갈등은 박정희 대통령 말기 극에 달했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 시절, 광주사태로 폭발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다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대통령이 됨으로써 천오백년에 걸친 한(恨)은 어느만큼 최소한 위무(慰撫)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다. 이제 남반부는 동(東)과 서(西)가 평준화(平準化)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다음 차례는 북한(北韓)을 형님 동생처럼 껴안는 일이다. 통일은 이렇게 시대를 조망하고 자연의 질서에 거스르지 않게 천천히 준비해야 혼란을 최소화시키며 성사되리라.

Time지는 2015년의 인물로 독일 앙겔라 메르켈 수상을 뽑았다. 2016년 미국의 대선도 여성이 대통령 될 기회가 지난 200년의 역사상 가장 크다고 예상된다. 한국은 이미 여성 대통령을 선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도 처음으로 여성 국회의원이 여럿 당선되었다고 외신이 전한다. 이런 변화를 조망해 볼 때, 지난 20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권위적 남성 시대〉는 쇠퇴해 가고 있음을 느낀다. 21세기는 여성의 〈감성과 자상(仔詳)함〉이 이끄는 세계로의 진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평화의 면류관은 독수리 머리에 있지 아니하고 비들기 입에 물린 올리브 이파리로 만들어지리라.

2015년 서울대 미주 동창회도 77학번의 가정대 여성에게 미주동창회장이라는 중임을 맡겨 주었다. 동창회란 〈리더의 비젼〉와 〈구성원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유기체라고 볼 때 우리 동창생들은 하나같이 귀하고, 쓰임새 있는 개체가 되는 것이다. 2016년에도 동창회보가 12회 발행되리라. 또 예와 같이 동창들의 창조적인 글과 다채로운 행사가 기사화 될 것이다. 어떤 생각이 글이 되고, 어떤 활동이 화보가되어 지면을 채울까 생각하면 벌써 기대가 된다. 다시 한번 내 마음에는 무지개가 뜨고 가슴은 두근거린다.

〈주필〉

[논설]

동창회의 정신

김인수 (사대 55)

서울대학교 동창회의 목적과 존재 가치는 교가에 있듯이 가슴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세상의 사는 진리를 찾으며 단군 승조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과 도산 안창호의 주인정신(主人精神), 진리(眞理)정신을 창출(創出) 실행함에 있다. 말하자면 자기 한 개인의 이상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동창회 전체의 이상이 있어야 하며, 대원(大願), 대망(大望)있는 많은 동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대인물, 대인격자를 얻어야 동창회는 향상되고 새로운 동창회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양(量)보다는 질(質)에 치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현재 서울대 미주 동문들은 정신의 혼돈, 의지 박약으로 환경에 마취되어 있다. 선한 인간성의 상실과 도덕성의 결핍은 동창회의 운영에 위험 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발상과 집단 이기주의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동창회는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동문들이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정도(正道)는 무엇인가? 그것은 봉사 정신의 생활화인 것이다. 봉사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며 상호간의 봉사가 우리 모두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증대시켜 준다는 사실을 체험하는데서 그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동창회에 동참합시다!' 로 동문들께 인화단결(人和團結)을 역설하고 싶다. 실행주의란 말보다 실천에 앞서야 한다. 현대인 특히 엘리트(Elite:지성인)들은 '말만 아는 사람'들이다. 현대인에게 지(知:Knowledge)는 있다 할지 모르나 행(行)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호(好) 와 부(否), 선(善) 과 악(惡), 의(義)와 불의, 해야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이불행(知而不行) 하는 '똑똑한 바보'나 '뻔뻔한 멍텅구리'가 우리 주변에 심히 많은것 같다. 21 세기의 급격한 변화의 세대에 우리 내부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각자의 창조력을 일깨워야만 한다. 창조력을 일깨워 주고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마음이라 믿는다.

이제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먼저 동문들 각자의 마음을 새롭게 출발하는데서 시작한다.** 우리 모두가 동창회를 맡게 하고, 고통받는 동문들, 은퇴한 동문들, 도움이 필요한 동문들을 위로하고 돕고저 하는 동체 대비의 원력을 가지고, 나와 이웃, 자연이 하나임을 깨닫는 실천적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동창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동창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혜를 모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미주동창회' 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을 서야만 할것이다. 동창회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데 우리는 예절과 질서 의식에 투철해야 하고(선후배의 관계) 교양있는 동문들을 기르기 위한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 의식의 파탄과 잘못 형성된 버릇으로부터 재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 오늘의 동창회 과제 '회비 납부 저조, 불참, 불협조' 를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곧 동창회의 밑거름으로서의 인성 교육이며 동문 의식의 개혁이다.

우리는 왜 우리의 조상들이 君子와 小人을 구별하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군자는 부동이화(不同而和)"라 하였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 "라 하였다. 군자는 不同而和할 줄 안다. 처지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서로 얽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리(事理)가 분명할 때는 그것을 존중하고 서로 이견(異見)을 지닌 대립 관계에 있다 해도 대의(大義), 공의(公義:Common Advantage)를 발견하게 되면 자기 주장을 버리고 대의, 공의를 따를 줄 안다는 점에서 군자는 부동이화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반면, 동이불화는 동일한 처지에 있고 동일한 일을 하며 동일한 환경에 살면서도 화합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키며 소인배(小人輩)라 한다.

우리중에는 저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많다. 민주주의는 상호 이해와 관용과 겸허의 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룩되어질 수 없는 질서인 것이다. 어느시대 어느사회에 있어서든 양식(良識)있는 봉사자들의 희생 정신이 사회 저변에 깃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기틀이 유지되어 가는 것임을 인지하여야만 한다. 옹달샘의 수원(水原)의 구실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내가 본 '미주 동창회'는 최하위라 할만큼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관리기능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모두 천재(天災)가 아니고 인재(人災)이다. 그럼에도 막지 못하고 수습 못함은 인사(人事)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창회의 관리는 투쟁이 아니라 경영이다. 그것은 힘으로, 고함으로, 돈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다.

미래의 세계는 오직 꿈을 가진 사람에 의해 열리며, 동창회는 뜻을 가진 동문들이 규합되어야 하고, 동창회의 지도자의 질(質)이 동문들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을 지도부는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더불어, John F Kennedy 대통령이 말하듯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을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라, 한 말을 의미심장하게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동창회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기 전에 동창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기 바란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이사〉

The Spirit of Alumni Association

[경제칼럼]

세계 경제전망과 뜨는 경제의 부채위기

백순 (법대 62)

2016년도 세계경제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니다라는 것이 IMF와 The Economist 주간지의 예측이다. '뜨는 경제'를 대표하는 BRICS의 경제들이 지금까지의 성장률에 비하여 저성장(Brazil 0.7%, Russia 0.4%, India 7.1%, China 6.4%, South Africa 2.2%)을 나타내고, 선진경제들은 비교적 건실한 경제성장(America 2.5%, Britain 2.2%, Germany 1.8%, Japan 1.7%)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나빠질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경제전망가들의 의견이다.

뜨는 경제들의 저성장과 선진경제들의 불안정한 건실성장을 결과하는 주된 요인은 뜨는 경제들이 잠정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금융위기/부채위기의 가능성 때문이다. 2009년 미국을 위시한 선진경제들이 주택거품파열의 금융위기를 겪고 있을 때 뜨는 경제들의 고도성장이 세계경제의 중도성장을 지켜왔지만, 2014년 이후에는 오히려 뜨는 경제들이 금융위기의 잠재력을 안고 있어서 2016년 세계경제의 전망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금융위기의 순환은 국경을 넘어 들어 오는 자본의 흥수로부터 시작한다. 뜨는 경제들에게 들어오는 자본의 흥수는 이자율을 낮추어 부실한 사업투자와 고가자산구입을 위하여 신용의 팽창과 부채의 증식을 가져오게 된다. 신용의 팽창과 부채의 증식은 금융거품의 파열을 가져오는 금융위기/부채위기를 결과하게 되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뜨는 경제들의 부채현황을 보면 아직 심각한 부채위기에 들어 가지는 아니하였지만 들어 갈 성향이 농후하다는 예측이다. 즉, 뜨는 경제들의 전 부채가 2009년 GDP의 150%이었던 것이 2015년 195%로 폭등했고, 기업부채만도 2008년 GDP의 50%이었던 것이 2015년 75%로 높아졌다. 뜨는 경제의 제1경제대국인 중국의 경우 지난 4년동안 GDP대 부채비율이 50%나 급등한 것은 뜨는 경제들의 부채수준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J.P. Morgan의 David Mackie의 52국가연구에 의하면 GDP대 부채비율이 5년동안 20%증가하면 최고부채비율 이후 3년동안 GDP 성장이 3%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든 뜨는 경제들이 부채위기/금융위기를 겪을 전망이지만, 심각하게 체험하는 국가들이 있고 경미하게 극복해 나아가는 국가들이 있다고 The Economist 주간지는 예측한다.

심각한 부채위기/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농후한 국가는 방만한 금융시장을 안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말레지아, 터키등 경제들이다. 후자에 속한 뜨는 경제는 부채의 부담이 크지만 건실한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는 한국, 싱가폴, 중국, 타이랜드, 인도 등 국가들이다.

10년전 미국에서 시작한 주택거품파열이 6년전 유럽연합의 그리스 부도로 이어졌고 2016년도에는 뜨는 경제들의 부채폭등가능성을 전망하는 것은 21세기에 들어서서 자본주의경제가 어쩌면 세계부채위기(World Debt Crisis)의 소용돌이 속에 접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전 주필, 워싱톤 버지니아 대학교수, 전 미국노동성 선임경제학자〉

〈제12대 2차년도 결산보고〉
(2014.7.1 - 2015.6.30)

수 입	
1.후원금 (Donations) (일반+(브레인넷웍+한국학)+대도약)	47,076.00
2.동창회비 (Member Dues)	65,015.00
3.광고 수입 (Advertisement)	30,280.00
4.지부 분담금 (Support by Chapters)	18,500.00
5.기타수입 (Other Income)	3,903.09
6.제24차 평의원회비 (9명)	900.00
7.은행이자(종신이사 & 모교발전기금)	341.00
8.전기 이월금 (제1차년도)	32,350.14
총수입(Total Income)	**198,365.23**

지 출	
1.동창회보 발간 (Newsletter)	56,664.13
2.사무실 운영비 (Office Operation)	103,022.76
3.제24차 평의원회(24th Nat'l Board Meeting)	6,317.61
4.제4회 Brain Network Symposium	7,212.30
5.본국 동창회 보조금(Support SNUAA-Seoul)	11,000.00
6.기타 경비 (Other expense)	2,351.00
총지출(Total Expense)	**186,567.80**

운영잔액 (Profit & Loss) *	**11,797.43**
1.2015-2016 선납 동창회비(Prepaid Dues) *	8,025.00
2.광고 선납분 (KISS Products, Inc) *	3,000.00
총이월된 금액 *	**22,822.43**

제13대 회장단에서는 총이월금($22,822.43)과 모교발전기금($130,136.54)과 종신이사회비($172,977.37)를 제12대 회장단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제안] '대통령' 명칭 바꾸자

김상순 (상대 67)

1. 머릿말: '대통령'은 대한민국 행정부 최고 책임자의 직함이자 국가 수반 명칭이다. 이 말은, 미국 정부의 'President'를 사무라이 시절 일본에서 '대통령'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선 말기와 일제강압통치 기간에 한국에서도 그들을 따라 번역어로 사용해 오다가, 광복되고 민주정부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행정상 공식어가 되었다. 1948년 제헌 때에, 신생 공화국에서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그 후로도 없다.

일본 번역은 잘못되었다. 민주정부 지도자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정반대로, 독재자 의미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President가 지닌 뜻도 없다. 일본에서는 이 번역어를 자기네들끼리 문서나 대화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헌법에 올려놓고 말았다. 공화국이 수립됐으나 최고 지도자 명칭은, 불행히도, 독재자에 걸맞은 이름이 붙여지고 나라가 출범했다.

오랜 세월이 경과했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 지도자에 합당한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 바꾸자.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먼 장래와 후손들을 위하여 과감히 바꾸자.

2. 일본신조어(日本新造語): 大統領 일본은 1853년 미국에 의하여 강제 개항되고, 서구의 문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동양 문화권에는 없는 말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일본의 외래어 번역은 다양했다. 대체로, 발음이 비슷한 자기네 문자 가타카나로 직접 표기하거나, 한자의 발음을 따서 간략 표기하였다. 또한, 한자의 의미를 이용하여 새로이 단어를 만들기도 했다 (예: the Atlantic을 서쪽에 있는 큰 바다라 하여 大西洋〈대서양〉으로). 이렇게 탄생한 단어를 '일본신조어'라 칭하자.

이 일본신조어는 일본개항과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전후 다량으로 만들어졌고, 일제강압통치 기간에 한국 언어에 대거 침투 자리 잡았다. '大統領(대통령)'이 일본신조어다. 탄생 경위는 이렇다. 메이지 유신 이전인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 '통령'이라고 불리는 '사무라이(武士)를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이 호칭 앞에 큰 '대' 자를 붙여서 President의 번역어로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란 단어가 이 세상에 처음으로 출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제도상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었고 자기네들끼리 문서나 대화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번역어의 의미를 놓고 고심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3. '대통령': 일본에서 수입 'President'를 조선에서는1883년에 최초 한미조약서에서 청나라의 '伯理璽天德'(백 리 새 천 덕; 중국발음은 '빠리쉬티안더')로 했고, 1892년부터는 일본을 따라 '大統領'으로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미 독립선언 직후 상해의 한국임시정부에서 최고지도자 명칭을 '대통령'이라 하였고 6년간(1919 ~ 1925) 사용 후 폐지했다.

4. President Preside: '회의의 사회를 보다' 라는 동사의 행위자를 의미하는 명사형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즉 '사회자,' 또는 '의장'이라는 뜻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 praesident (praesidere 의 파생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분석하면, pre- (앞에), sid- (앉은), -ent (자)이다. 그 의미는 '사회자'로, 나아가 '어느 단체의 지도자'로 발전했다. 따라서, 영어권에서는 삼권분립 민주정부의 행정부 수장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회사에서는 사장, 대학에서는 총장, 각종 단체에서는 회장을 칭하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다.

이 평이한 단어를, 신생국 미국이 세계 역사 최초로 삼권 분립에 의한 정부를 구성하면서, 행정부의 최고 지도자 직함으로 정했다. 입법부 지도자는 Speaker(말하는 사람)로, 사법부 지도자는 Chief Justice (으뜸 정의;수석 판사)로. 단순한 이름들을 지도자의 명칭으로 정한 미국 건국 지도자들의 용기와 지혜가 느껴진다.

5. '대통령'의 영향: 항상 자기에게 '대통령각하!, 대통령각하!' 해대니, "암, 내가 '대-통-령'이야! 이 나라를 '크게 통치하는 사람' 이라구! 내 앞에서 감히 누가 까불기만 해봐라, 그냥 치도곤이를- -" 속으로 자주 그러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 눈으로 오래도록 지켜봐 왔다. 이런 것을 두고 '자기 암시 효과' 라고 부르던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명칭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은 지배와 복종이 요구되던 전근대 사회에 속하는 언어다. 일본 사무라이들의 작품 아닌가? 따라서, 이 명칭은 자유와 평등이 기본 바탕이고, 민주주의가 보편적 이념인 현대사회에 부적합하여 대한민국의 민주화 발전을 저해해 왔고 앞으로의 발전에도 장애물이다.

6. 새로운 명칭: '대통령'을 대체할 새로운 명칭은 국민 전체의 뜻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회에 이 목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전문가와 해당 분야 학자들이 참여하고, 국민 전체 뜻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그리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아니면 절차상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명칭이 탄생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본다.

내 소견으로는, 기존 어휘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한자어가 아닌 순수 한국어로, 의미와 발음이 좋은 말로, 새로이 지어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종 채택될 때에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 국민 대상 공모를 하는 것이 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7. 개명 추진 주체: '대통령'을 사용 폐지하고 새로운 명칭을 정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일이다. 이 일을 누가 추진하여 성사시킬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이 소신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그 경로로는 실현성이 낮다. 우선, 현직 대통령이 그 소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기대난망이고, 항상 현안에 쫓겨 바쁜 일정 속에, 누군가 혹 거론했다 하더라도 당장 정치적 이득도 없는 '대통령 개명'은 관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정계 여권 또는 야권에서 거론하여 추진한다면 어떨까? 항상 극한 대립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인지라, 어느 한쪽에서 들고 나오면 다른 쪽은 즉각 반박하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 중요한 국가적인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일도 아니고, 다른 한편, 너무 중차대한 일이라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도모해야 할지 몰라서 이 일은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서울대 동창들이 나서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어떠할까?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동창들은 사회 전 분야 각계각층의 지도적 위치에서 일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국가의 동량들이다. 이 동창들이 힘을 모아 달성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모교의 한 깃발 아래, 보수냐 진보냐를 초월하고, 당파적, 사회경쟁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가슴 마다 성스러운 이념을 품고-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 -"을 위하여 서울대 동창들은, 어느 누구도 어느 단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맺는말: '대통령'은 주어진 말로 지난 68년간 모두 그냥 말하고, 듣고, 쓰고, 읽어 왔다. 그 말을 누가, 언제, 왜 그렇게 지었고, 언제부터 우리가 사용해 왔고, 그 명칭이 민주 공화국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럴 겨를도 없었다.

지금은 어떤가? 드디어 때가 왔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만큼 성숙했다. 일제강압통치의 총본산이었던 조선총독부청사(과거 '중앙청' 건물)는 건립으로부터 70년만인 1996년에 일본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철거되었다. '대통령'도 허물어서 역사 속으로 보내자.

'브라질의 한 나비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하던가. 서울대 동창들이여, '나비효과'라는 이 과학이론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사회현상에도 적용되는지 시험 한번 해보자. 미주 지역 동창들 하나 하나가 동창들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 명칭 바꾸자'는 것을 화제 삼아 대화 나누자. 한마디 한마디 목소리가 합해지고 퍼지고 또 퍼져나가서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 이르러 거대한 함성이 되어 가는지 지켜보자.

** 이 제안에 대한 동문님들의 의견을 news@snuaa.org 로 보내주세요 **

원/고/모/집/합/니/다

* 2월호 '인내' 3월호 '웰빙'의 주제로 동문님들의 글과 사진을 news@snuaa.org로 보내주세요.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 쓰는 분도 보람있고 독자들에게도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글을 원합니다. 장르는 시, 수필, 평론, 꽁트 등의 창작품, 미술, 음악, 영화, 공연예술, 독서, 여행, 역사, 철학, 종교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살고 계신 지역의 명소를 소개해 주십시오. 〈독자의 광장〉에 들어갈 회보에 대한 소감이나 제안을 보내주세요.

고화질의 사진도 보내주세요(25면 참조). 건강, 의/약학/간호학, 아동, 노인, 가정, 은퇴재정, 세무, 법률 등의 상담질문도 가능합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로부터의 답변이나 칼럼도 싣겠습니다. 가능한 한 단어수 500자 또는 글자수 2000자 내로 해 주십시오(사진이 들어가는 경우, 더 짧게). 부득이한 경우 조금 더 길어도 됩니다. 이 경우 회지 지면 형편에 따라 다음 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로 쓰시고 첨부파일로 보내주세요.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모교 소식 SNU NOW

모교 페이스북 '대나무숲', 새로운 아고라가 될까

김예원 (언론정보13)

2015년 현재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여다보는 게시판은 복도도, 거리도 아닌 손안에 있다. 바로 페이스북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이하 대나무숲)이다. 한 동화에서 대나무숲이 비밀을 들어주는 역할을 했듯이, 이 페이지에는 익명으로 제보된 글이 관리자의 확인 후에 업로드된다.

현재 4만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고 게시물을 구독하고 있다. 이용자 수로 보건대, 과거의 대자보나 학내 신문에 버금갈 만한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나무숲의 내용은 이들보다 훨씬 다양하다. 대나무숲 제보 페이지에서는 제보 유형을 인간관계, 진로, 토론이슈(학내/사회), 연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11월 기준으로 수능 제도에 대한 비판,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운동에 대한 생각, 연애 고민 등이 최근 게시물로 올라와 있다.

이처럼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는 대나무숲은 크게 세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첫째, 공론장 역할을 한다. 익명의 제보자가 게시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댓글을 통해 찬반 토론이 벌어진다. 둘째, 학내 소식의 전달 창구이다. '찾아가세요' 제보를 통해 분실물을 신고하는 것부터 부조리 고발, 미담 전파 등 뉴스의 범위는 매우 넓다. SNS의 특성상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셋째, 공동체 의식이 강화된다. 서울대 학생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이나 고민에 대한 글이 올라오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과 위로를 보내며 '우리'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현재 대나무숲은 8명의 재학생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제보 중 음담패설, 노골적 비난, 특정인을 지목하는 글 등을 걸러내고, 특정 주제에 대한 논의가 과열되면 관련 게시물 업로드를 중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언론사의 편집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감시할 수단이 없고, 관리자가 내용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는 법이다. 대나무숲도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사라져가는 학내 소통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능성을 실현하고 우려를 지울 수 있을지 여부는 이용자들의 역량에 달렸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애교심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대나무숲을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가꿔가길 바란다.

미래국제재단 김선동 이사장 '선한 인재 장학금' 50억원 쾌척

지난 10월 7일 미래국제재단 김선동(화학공학 59-63) 이사장이 서울대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의 선한팀 주자로 참여해 '김선동 선한 인재 장학금' 50억원을 쾌척했다.

서울대학교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기 위해 생활비 장학금인 '선한 인재 장학금'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 2일 기부릴레이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김선동 이사장의 통 큰 기부로 장학금 모금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성낙인 총장은 "국가경제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며 나눔과 배려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김선동 이사장님께 경의를 표한다"며 "후배 사랑과 후학들을 위한 이번 기금은 우리 학생들이 창의와 헌신, 배려와 미덕을 실천하는 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소중히 활용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선동 이사장은 "서울대의 선한 인재 정신과 이번 기부에 담긴 따뜻한 희망 사회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모두가 사회 약자를 위한 기부가 선순환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국제재단은 우리나라 정유업계 최장수 CEO인 김선동 前 S-Oil 회장이 2008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후 '빈곤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로 설립했다. 이후 김선동 이사장은 각 대학과 '새싹 멘토링' 장학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의 멘토사업을 실시했으며, 이번 기부 외에도 서울대에 '새싹 학습지도 장학금' 약 5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서울대는 모금캠페인 「선한 인재 이어달리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계소득 1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학생 전원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속적으로 생활비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캠페인 현황 및 후속 주자 확인은 서울대발전기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871-1624)

마음 속의 죽창은 무엇을 향해

강수원 (영어교육 13)
대학신문 편집장

2015년 인터넷을 돌아보면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함의를 보여준 유행어가 참 많았던 것 같다. 몇몇은 랜선을 넘어 국정감사 현장에서 높으신 분들의 입에 오르내렸으며 언론에서도 워낙 자주 다뤄져서 식상할 정도가 됐다. 이처럼 인터넷에서 청년들 사이 유행한 불온한 유머 코드들 중 '올해의 유행어'를 뽑는다면, 본인은 주저 없이 죽창(竹槍)을 고를 것 같다.

"금수저든 은수저든 죽창 한 방이면…!" 인터넷 상에서 죽창을 찾을 때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구다. 2000년대에 떠돈 어느 조악한 퀄리티의 인터넷 만화에서 빌려온 대사에 2015년의 '수저계급론'이 접목되는 순간 네티즌들은 "죽창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의미의 평등이냐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나 죽창에 한번 '푹-!' 찔리면 죽는다는 것이다. 육신이 관통된다는 가학적 이미지의 블랙 유머를 두고 누군가는 섬뜩해 마지않고 누군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곧이어 '죽창열풍'의 기저에 깔린 청년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논하는 무수한 분석이 쏟아졌다.

죽창 앞의 평등이 회자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로 노력 신화에 대한 열렬한 부정이 지적된다. 점점 둔화되는 잠재 성장률, 고스펙 대졸자들도 피해갈 수 없는 10%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률,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이 5명 중 1명에 달하는 현실의 지표들이, 왜 80%에 달하는 20대가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답하는지(현대경제연구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한편, 조금만 눈을 돌리면 '조물주 위 건물주'의 일상을 요약한 인포그래픽이나, 하루아침에 1천억원대 주식 부자가 된 어느 제약회사 회장 손주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죽창이 관통해야 할 대상으로 날 때부터 물질적으로 풍족했던 금수저나 은수저가 지목된 것은 이런 맥락으로 풀이되곤 했다.

그런데 '죽창드립'이 사용되는 맥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수상하다. 예를 들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커플의 달달한 연애 스토리가 올라오면 "죽창, 주욱창을 달라"거나 "제아무리 커플이라도 죽창 한 방이면!"과 같은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지 질투를 과격하지만 재밌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까? 경제적 문제로 '연애'나 '결혼' 등을 포기하는 'N포세대'라고 꼬리표가 너무도 쉽게 붙는 우리 세대가 당면한 현실과는 무관한 반응일까? 이유야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죽창을 들어야 할 대상이 단순히 부유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점점 더 성취할 수 없게 되는 현실의 불공평함을 토로하면서 인터넷에 죽창이 등장했음을 고려하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죽창'이 해결해야 할 불평등의 외연이 늘어나는 현상은 사실 전혀 놀랍지 않다. 우리 사회의 온갖 영역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한 사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 충분한 교육을 받는 사람 등에게도 죽창이 필요하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조만간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죽창 앞의 평등이 모든 영역에서 필요해진 지극히 불평등한 미래를 상상해보자. 결국 그것은 모든 종류의 파이를 놓고 너, 나, 우리가 서로에게 죽창을 겨누는 사회, 즉 각자도생에 갇힌 현재 한국사회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찔러 죽여도 불평등 그 자체는 미결일 것이며, '죽음'이라는 죽창 앞의 평등은 내가 죽기 전까지 나를 결코 벗겨가지 않을 것이다.

저마다가 마음속에 날카로운 죽창을 하나씩 품고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요즘이다. 혹자는 오늘도 속으로 불평등을 상징하는 누군가를 죽창으로 꿰뚫어버리는 '유쾌한' 상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리하게 깎아놓은 죽창이 향해야 하는 것이, 단지 곁에서 함께 불평등한 현실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모교 소식 SNU NOW

서울대 올해 수시합격자 '154명 등록포기', 의대선호 영향?

본지는 한국경제신문(김봉구 기자)의 기사를 소개한다. 서울대의 올해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당초보다 154명 늘었다. 수시 합격자 미등록분이 정시로 이월된 것이다. 타 대학 의과대학에 중복합격한 수험생들이 이탈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6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이 24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대는 정시 인원(이하 일반전형 기준)을 766명에서 920명으로 늘려 뽑는다고 밝혔다. 수시 미등록에 따른 정시 이월인원 154명 가운데 자연계 모집단위가 146명에 달했다. 인문계에선 2명, 예체능계에서 6명 나왔다. 전공별로 간호대학(14명) 전기정보공학부(12명) 생명과학부 조선해양공학과(이상 9명) 지구환경과학부 식품생산과학부(이상 8명) 식품영양학과(7명) 수의예과 건설환경공학부 산림과학부(이상 6명) 등에서 미등록 인원이 많았다.

따라서 정시에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는 12명 늘어난 51명, 생명과학부는 9명 증가한 19명을 뽑는다. 경영대(78명)와 의예과(25명)는 선발인원 변동이 없으며 사회과학계열(92명)은 1명 줄고 인문대(47명)는 1명 늘었다. 수험생들은 최종 모집인원 확인 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178명)와 비교하면 수시 합격자 미등록으로 인한 정시 모집인원 증가분은 소폭 감소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서울대 자연계 수시 미등록자는 주로 합격자가 다른 대학 의학계열이나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으로 이탈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주요대학들의 수시 이월은 연세대를 제외하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었다. 올해 수시 추가합격 기간이 늘어나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추가합격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연세대의 수시 미등록자가 많은 것은 대부분 서울대 중복합격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여타 주요대학들은 28~30일 원서를 접수받는다.

대학	2015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이월인원 증감 (2016-2015)
	최초인원	최종인원	수시 이월인원	최초인원	최종인원	수시 이월인원	
고려대	1,037	1,181	144	1,037	1,181	144	-
서울대	771	949	178	766	920	154	- 24
성균관대	903	1,160	257	880	1,042	162	- 95
연세대	1,056	1,211	155	1,051	1,326	275	120
중앙대	939	976	37	799	842	43	6
한양대	796	802	6	748	756	8	2
소계	5,502	6,279	777	5,281	6,067	786	9

▲ 〈표〉 주요대학별 정시(일반전형) 최종 선발인원 / 진학사 제공

'마이크로 RNA' 연구에 앞장서다 - 김빛내리 서울대 교수 *Science Times* 에

'마이크로 RNA(miRNA)'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93년이다. 빅터 암브로스(Victor Ambros) 등 3명의 과학자는 꼬마선충의 성장을 조절하고 있는 'lin-4'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 이 RNA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다. '마이크로 RNA'는 세포의 분열과 성장, 사멸 등 세포 활동에 질서를 잡는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RNA가 제대로 생성돼 활동하지 않으면 세포는 질서를 잃어버리고 그 결과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김빛내리(자연대88) 기초과학연구원(IBS) RNA연구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은 '마이크로RNA' 생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인물이다. 2002년 사람 몸속에 있는 '마이크로RNA'가 세포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 상호조절작용 규명

2003년에는 실제로 '마이크로RNA'를 만들고 있는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드로셔-DGCR8 단백질 복합체, 일명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발견했다. 2008년에는 특정 '마이크로 RNA'가 암 발생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009년에는 사람의 성장과 관련된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다. 2010년에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초기 배아 단계에서 '마이크로 RNA'의 작용을 규명했다. 생명 탄생의 단서가 되는 이 연구 결과는 '셀', '네이처', '사이언스' 등 주요 저널에 모두 실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5년 들어서는 김단장이 이끄는 RNA연구단을 통해 '마이크로 RNA' 생성 작용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의 구성과 기능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셀(Cell)' 지에 발표했다.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가 발견된 지 10여년 만에 이루어낸 매머드 연구 성과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개의 드로셔와 2개의 'DGCR8' 분자로 구성돼 있는 이 복합체는 상호 조절 작용을 통해 세포 내 필요한 양의 '마이크로 RNA'가 생성하고 있는 중이다.

'마이크로 RNA'는 세포에서 유전자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여기에 이상이 생기면 암 같은 질병들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세포에 이상이 생기고 '마이크로 RNA'의 양도 변해 세포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복합체 구조가 밝혀짐에 따라 향후 '마이크로 RNA'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빛내리 단장은 "앞으로 '마이크로 RNA'를 활용해 단백질 합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암이나 유전질환 등의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RNA 연구를 위해 새로운 연구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RNA 생물학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여섯 번째가 김 빛내리 교수. ⓒ서울대학교 RNA생물학연구실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 더 늘려야…"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연구단장(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은 한국 여성 과학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회자되는 인물이다. 1969년 전남 영광에서 태어난 후 서울대와 동 대학원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했다.

1998년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대학원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마이크로 RNA' 연구를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다. 당시만 해도 '마이크로 RNA'를 연구하고 곳이 국내·외를 통 털어 찾아보기 힘들었다.

연구 성과예측이 모호해 연구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김 단장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올해 발표한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 연구결과는 '마이크로 RNA'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복합체를 대량 정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향후 의료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됐다. 김 단장은 '사이언스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향후 '마이크로 RNA' 연구를 더 발전시켜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RNA' 생성 과정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해나가겠다"는 것. "세포 내 수많은 RNA 중에서 '마이크로 RNA'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어떻게 자신의 특성을 획득해나가고 있는지 밝혀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빛내리 단장은 연구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셀'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5월 개최된 미국 국립학술원(NAS) 총회에서 외국인 회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NAS 회원이 된다는 것은 과학·공학자로서 최고의 영예로 평가받는다.

지난 2013년에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기관 등에서 선정하고 있는 과학 분야 차세대 리더로 벌써 수년째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과학 대중화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구로 바쁜 일과 중에도 지역 곳곳을 방문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의 꿈을 심어주고 있다. 김 단장은 2016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 더욱 더 고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존중받고 구현될 수 있는 연구 문화와 환경이 만들어지고, 또한 혁신적 발견과 발명을 가능케 할 연구와 교육의 기반을 쌓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젊은 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 과학자들이 신나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연구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ScienceTimes〉

▲ 2002년 '마이크로RNA' 생성 과정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김빛내리 박사가 올해 들어서도 '드로셔 단백질 복합체' 상호조절작용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는 등 놀라운 연구 업적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기부 사이트

미주뉴스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 최초 선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인권 관련 국제기구의 의장직 수임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7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이사국들이 합의를 통해 한국을 2016년 의장국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임기는 1년으로, 최경림 주제네바 대사가 전임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세계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한국은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인권 관련 기구의 의장직을 맡게 됐으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인권 신장 성과와 지난 10년 간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을 세 차례나 수임하는 등 세계 인권 증진에 기여한 것을 평가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권이사회 의장국은 5개 지역그룹(중남미·동구·아프리카·서구·아태 지역)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내년이 아태 지역 차례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반영하는 문제는 한국 대표단이 하게 될 것이고 의장은 이와 별개로 포괄적 이슈를 다루게 된다. 그 중 하나가 북한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사회에선 다양한 목소리를 조정해 의견 일치를 봐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의장은 회의를 계속 열어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필라여성회 강연 – '물은 하나이고 전부다'

필라여성회(회장 이교연)가 창립 29주년을 맞아 기념 강좌와 만찬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일) 오후 4시부터 블루벨에 있는 라이라이가든에서 열린 이날 기념 강좌에서는 화학자 최해탁(사대66) 박사가 '물은 하나이고 전부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강연에서 최 박사는 물리와 화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최 박사는 "물은 인류의 문명과 함께 해 왔으며 모든 생명체의 모태이자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를 결정하는 주요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1986년 한혜원(의대55), 윤정나(음대57), 윤경숙(문리대 59)등이 참가해 고 이태영(법대46, 서울대 최초의 여학생) 변호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필라지부로 설립된 필라여성회는 그동안 4,000 여건의 무료상담과 각종 교양강좌를 개최해 왔다.

▲ 최해탁 박사 강연

강연개요:

명체를 낳고 기르는데 필요한 요소는 3 가지, 즉 물과 공기 그리고 에너지다. 공기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물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생명체가 태어나고 번성한다. 물을 바탕으로 풀이나 나무가 나고 자라며 사람이나 동물 또한 물과 식물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해 왔다. 인류의 문명 또한 마찬가지다. 물의 자원과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나가 인류의 문명의 척도가 되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은 또한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렇게 흔하면서도 가장 귀중한 지구의 자산이다.

물은 유일하게 고체, 액체, 기체의 3상이 공동으로 지구상에 존재한다. 대부분이 액체 상태인 물로 존재하지만 2%에 가까운 양은 빙하와 얼음으로 존재하고 기체 상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도 적지 않은 양이다. 이렇게 지구상에 물이 풍부하지만 물의 대부분은 염분 농도가 높은 바닷물로 존재하며 민물의 양은 전체 물의 3%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제한된 양의 민물도 그 대부분이 빙하, 얼음, 지하수등으로 존재하고 동 식물이 이용하는 지상의 호수나 강물등의 표면수는 극히 적은 양이다.

지구상에 왜 이렇게 물이 많을까. 이와 같이 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들은 수 없이 물어 왔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답이 없다. 우리는 현재의 태양계의 운동과 구성 형태등을 통해서 지구가 약 45억년 전 태양계가 생성되면서 잔여물로 태어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초기에 지구는 태양과 같이 주로 수소원자들이 응집되면서 생성되었다. 기체는 팽창하면 식고 응집하면 뜨거워진다. 마찬가지로 수소원자들이 응집하면서 지구를 형성할 당시 엄청난 열을 발생하며 뜨거워졌다. 그 열에 의해 핵반응이 이루어지고 여러 원소들이 생성되었다. 이러한 생성과정에서 물이 형성되었다면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탄생한 금성이나 화성에서도 물이 풍부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성이나 혹성이 지구에 떨어지면서 물을 가져다 주었으리라는 설이 지배적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성이나 혹성은 얼음 덩어리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14년 유럽 우주국 (European Sapce Agency)이 쏘아 올린 우주탐사기 로제타(Rosetta)가 얼음으로 된 혹성(67P)에 장비를 착륙시키는데 성공시킴으로서 그 혹성의 물 구성을 측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 혹성의 물 구성이 지구의 물 구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발견으로 물의 기원이 혹성이나 유성에 기인한다는 기존의 설이 신빙성을 잃고 지구의 진화과정에서 생성되었을 것이라는 설에 더 무게를 싣게 되었다. 왜 지구의 진화 과정은 독특하게 물을 많이 생산했는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물이 중요하다 보니 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 터무니 없는 이론으로 상업적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특히 거짓 과학은 일본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고 사이먼프레이저 대학 스티븐 로우어(Stephen Lower) 교수는 통탄하고 있다. 물은 원자 구성면에서 오직 하나뿐인 H2O이며 분자 구조상 오직 하나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물은 모두 동일하며 물에 종류가 있을 수 없다. 물이 다르다면 그건 물속에 존재하는 불순물 때문이다. 우리는 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어 상업적 오도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다.

최해탁 동문은 다트머스(Dartmouth)대학에서 물리화학을 전공해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세계 최대의 화학전문 기업 듀퐁(DuPont)에서 연구원으로 장기간 근무했다. 삼성그룹 관련 연구소의 소장과 대한 화학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서재필재단 창립 40주년 기념식

서재필기념재단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지난 2일 필라델피아 시티라인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현태(문리대 62)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이사진, 재단관계자등 1백50여명이 참석했다. 또 최근 재선에 당선된 데이빗 오 필라시의원도 참석해 재단창립 40주년을 축하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재필재단의 현재와 미래'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의료원을 찾는 환자가 연 1만여명, 사회봉사와 건강보험부문 방문자까지 합치면 연 1만2천여명이 된다"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새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기금 조성 등 다각적인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재단건물은 최근 강당을 줄여 정신건강상담실을 만드는등 확충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소한 주차장이나 건물의 위치, 스페이스등을 감안할 때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최회장은 "현재의 시설공간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으며 2세대에게 재단을 물려줘 한인동포를 위한 의료봉사센터로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1세대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오바마케어와 미국의료시스템의 개혁등으로 재단에도 인터넷전문가를 포함한 인력확충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가정간호나 방문간호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재단설립 핵심멤버인 윤두환박사와 27년간 서재필재단에서 근무하며 업무를 담당해왔던 이지영(문리대67) 전총무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간호사 한동숙씨를 비롯, 강현숙, 조앤 모슬리, 크리스틴 조 등 4명의 직원들에게 '제인 송'상이 수여됐다.

이날 서재필 기념재단은 한인 2세들에게 서재필박사를 알리기위해 기획된 서재필 UCC비디오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우승은 델라웨어 한국학교의 솔로몬 조, 2위는 캘리포니아 한빛한국학교 학생들이 함께 만든 동영상, 3위는 매사추세츠지역에 살고 있는 이안 최군이 각각 차지했다. 서재필기념재단은 최근 서재필박사의 전기 '우리 아빠 서재필박가이야기'라는 만화책도 발간,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서재필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 책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My Story & Your History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동문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수많이 있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이라 합니다.
*My Story and Your History*는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며 인생의 세잎 클로버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젊고 찬란했던 시절을 서울대라는 같은 공간에서 보내고, 또 다시 이곳 미주에서의 삶으로 다시 공통점을 갖는 여러 동문님들의 인생을 조금씩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 이메일 news@snuaa.org로 동문님의 그리운 과거사진 한 장과 현재사진 한 장 함께 보내주세요. 〈담당: 허유선(가정대 83) 편집위원〉

"My Best Friend is the One who brings the Best in Me." -Henry Ford

1. 간단한 동문님 소개와 이민동기
2. 동문님의 인생에 가장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이나 삶의 철학, 좌우명 ?
3. 미국의 첫인상이나, 동문님께서 만일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
4. My Favorite Things : 책 음악 영화 음식 사람 장소 등등
5. 동문님이 자랑하고 싶은 특별 건강관리 비법은?
6. 만일 과거 서울대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하고픈 일이나 미래의 Bucket list?
7. 서울대 미주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의견

이중희(CA, 공대 53)

1. 한국에서는 서울 공대를 졸업한 후 한국조폐공사에 근무하며 고려대학에서 화학을 가르쳤고(강사) 충남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쳤음(강사). 미국에서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 대학 1학년에 입학하여 수학을 전공했고(2nd B.S. Degre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는 M.S.와 Ph.D.를 School of Engineering에서 받았고 MIT에서 Environmental Engineering 과정 졸업(Degree Program 아님).

   직장은 정부에서 Civil Engineer로 20년(공무원) (정부공무원 때는 높은 자리에 있어 관용차를 사용했고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오고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영사로 있었음. Joan Valees가 나의 비서였음),

   동시에 Los Angeles Community College에서 수학 교수(26년). 그 후 RCH Research & Environmental Laboratory(주정부와 U.S. FDA Lic.)에서 Director(15년). 그 후는 Standard Testing and Engineering Inc.에서 사장(연구직).

   2015 현재 84세, 내년 2016년에 Retire 예정임.

   이민 동기는 미국에서 나의 능력대로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서 왔음. 2014년 Nobel 화학상에 Nomination 됐었으나 안됐음. 하지만 2016.3.17에 전세계의 과학자가 모이는(화학, 문리학, 의학) American Chemical Society International 회의에 나가 연설하게 되어 있음.(미국, 유럽 중 전세계에서 12,000명 이상이 참석함)

   미국에 맨손으로 와서 처음 2년간은 Homeless 거지들과 노숙하며 살았음.

   (Website: www.choonghrhee.com 참조)

2. 정직, 근면, 절약 그리고 큰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살면 도우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느 직장에서나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잠 안자고 하고 해결하면 승자가 될 수 있음. (미국에서는) 2006년에는 George Bush President Dinner에 초청되어 저녁을 함께 했고, 2012년에는 Obama 대통령으로부터 2page의 감사편지를 받았음.(미국을 강하게 만드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미국정부의 도움으로 1988년 Olympic 때 "성화봉송" 주자로 나가 뛰었음(서울 근교에서).

3. 한국의 풍토문화가 나와는 잘 안 맞습니다. 1978년에 KIST(현재 KAIST)에 환경공학부장으로 갔다가 그냥 돌아왔고 같은 해 수원의 아주공대 교수로 초빙되었으나 거절했음. 2006년에 KAIST 총장모집에 응모했다. 고등학교 4년 후배인 서남포 교수에게 졌음.

4. 중앙일보 신춘문예작품 공모에 '논픽션' 분야에서 2번 일등에 당선됐고, '소설부문'에서 가작에 당선됐음.

   음악은 나의 마음을 풍요롭게 그리고 평화스럽게 해주어 Violin을 약 25년간 배우고 있음. 요즘은 '내 나이가 어때서'란 노래를 즐기고 있음(서울공대 동창회때 부를라고).

5. 1975년부터L.A.Fitness member 가되어 Everyday(Except Saturday & Sunday) 2Miles를 30분 이내에 속보로 걷고, Weight, Lifting, Stretch등으로 1.5시간 소모함. 술, 담배는 피면 안됨(단, Social은 Okay).

   좋아하는 음식은 시금치 된장국(1), Prime Rib Steak(2), 호박무침(3), 새우/야채 뎀뿌라(4) 등등.

6. 화학, 문리, 수학, 의학을 더 공부하고 싶음.

7. 필자와 독자가 동감할 수 있는 기사뿐 아니라 필자가 비판을 받아도 건설적인 것이라면 회보(신문)에 실어 주시면 어떨까요?

김영덕(CT, 공대 53)

1. 강원도 동해안 장전에서 태어나 1945년 해방되든해 국민학교 5학년이었고 1947년 봄 38선을 넘어 월남. 대전에서 중학교 후 전남 순천에서 고등학교 1 학년때 6.25 전쟁이 나 거제도에 피난가서 거제고등학교를 졸업. 1953년 부산에서 공대 토목과에 입학. 1958년 졸업 후 해군 시설장교가 되어 5년을 복무하고 1963년 카나다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대학원에 입학. 1970년 박사학위를 받고 Golder Associates에서 근무. 1974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시소재 MRWJ Consulting Co. 에서 일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ARMCO에 파견근무 중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하여 현대중공업 현대종합상사를 거쳐 1997년 21년간의 현대 생활에서 은퇴한 후 현재 미주동포사회의 여러 비영리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제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을 만난 것입니다. 한사람의 젊은 기술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그렇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설득하시던 모습. 끝내는 "나 개인이나 현대라는 한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와서 같이 일해야 돼"라는 말씀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에 합류했고 잘 알려진 당시 세계최대 항만공사 쥬베일 산업항(9억 3천만불, 한국정부예산이 2십억불이었음. 참고로 2016년 예산은 3천8백60십억불)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큰 보람입니다. 정주영회장께서 현대와 우리나라를 위하여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말을 자서전에 쓰신 것을 보면 보탬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철학은 소통과 관용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와 그분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긍정적 사고에 큰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다문화사회에서 공생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소통하고 같이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용과 인내가 필수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3. 카나다에서 11년 살고 1974년 미국으로 이민왔습니다. 미국은 모든면에서 대국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인권등 시민과 나라의 기본을 규정한 헌법에 대한 존중 및 보호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민의 나라 소위 다문화국으로서 우리 자손들도 시민으로서 당당히 역활을 하고 살 수있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건설부나 항만청 토목기술자로 열심히 살다 은퇴하여 골프는 비싸니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며 소일할겁니다. 지금처럼 비영리단체 봉사활동을 못할 것 같습니다.

4. 제 취미 제일번은 골프입니다. 월래 운동을 좋아해 대학때 배구를 했는데 유학와서도 배구를 했는데 우연히 스코트랜드에서온 학생으로부터 골프를 배우게 되었는데 고만 빠지고 말았지요. 1963년에 시작했으니 52년 되었습니다. 나이들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건강에 제일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외 취미로는 Classic 음악과 인간의 삶과 관련된 Documentary Film이나 Video를 좋아합니다.

5. 저는 시간만 있으면 골프를 위하여 책이나 video 보고 연습하고 골프코스에 나가는 그 열정어린 집념이 제 건강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6. 제가 다시 서울대생으로 돌아간다면 전공과목 외에 철학등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친구들을 깊이있게 사귀고 싶습니다.

7. 1997년 은퇴 후 저는 미주동포사회의 권익신장, 차세대지도자양성, 한인동포연구, 한국어를 미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는 운동 등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후배님들에게 꼭하고 싶은 말은 "서울대동문답게 사세요." 입니다.

김광희(NJ, 간호 69)

1. 1950년 6.25 전쟁시작 직후에 '사생아'라는 Tag을 달고 태어나 주위 어른들로부터 '너는 외국에가서 사는 방법을 찾아라'는 권고를 받으며 자랐다. 가난과 혼란이 겹친 상황에서 그 권고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여 간호학 공부를 택하고 이민계획 실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Georgia에서 35년동안 살면서 결혼, 3남매 출산, 이혼, 재혼을 체험하고 '인생공부는 끝이 없다' 믿으면서 고통없이 살아왔다.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간호대학 학생들 지도에 끌려들기 시작하면서 대학교수노릇 하느라고 공부를 계속하기 시작한 것이 영원한 학생으로 길을 바꾸게 되었다.

   Georgia State University 에서 2007년에 간호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 수업을 마치는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같은 해에 New York으로 이사해서 College of New Rochelle에서 교수생활하다가 2012년 봄,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여 거의 4년만에 마치고 이제 Private Practice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내가 바라고 노력하는 삶은 체험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이다.

3. 1974년 봄날 밤에 JFK 공항에 도착하여 이튿날 아침 더러운 Manhattan 거리를 걸으면서 날아갈 것같은 Freedom을 맛보았다(It is hard to explain). 어릴 때 놀던 골목길, 학창시절 그림기는 하여도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4. 어제 학교 Clinic Office에서 한 환자가 Thank You Card를 가져왔다고 전달해주었다. 그 환자는 저소득층 주택에 사는 장애인이고 걸을 때 지팡이가 꼭 필요하다. 졸업 축하 Card 안에 5불짜리 두장이 나란히 놓인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왔다. 앞으로 이런 순간이 나의 Favorite Moment가 될 것을 생각하니 앞길이 기대된다.

5. 건강은 타고났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고장이 자주 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건강의 비결은 Diet, Exercise, Relax. 나는 Mobile Phone에 Diet App.을 사용하고 운동은 Ballroom Dancing과 Hiking, Yoga는 Relax와 Stretch를 위하여.

6. Bucket List: 한국음식 맛있게 만들기

7. 미주 동창회가 미국 Community Service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꼈으면 합니다.

이홍빈(NJ, 의대 57)

1. '정형외과' 은퇴.(의대 '63 졸). University of South Carolina/Moore Clinic; Upstate New York/Albany-Schenectady; and Kingston, N.Y. '공부' 어어-ㅁ청 해서, 우리 그당시 아직 초창기(?)였던 정형외과로 돌아가려 했었던 .

2. 평생, 택한 '전문', 특히나 힘든 일, '보람으로, lifelong mission's been accomplished'. 참 '뭣빠지게' 일만 많이 했으므로 ... , 여전 맛있게 먹고/(알맞게) 즐겨 마시고/건강 챙기며, ... 정신 또렷한채 '그날'까지 남아있기.

3. 첫 인상? 우선, '냄새'가 다르고, '깨끗'하고, ... , 그 '광활'한 천지. Hawaii르거쳐, San Francisco에서 일주일 넘게 머물며, ' 앞으로 평생 죽도록 할 일 그고생이 빼어ㅡㄴ하니, ... 일 시작하기 전'으로, 미리 자ㅡ아-ㄹ 놀고 지내다 왔던 기억이 엊그제로 생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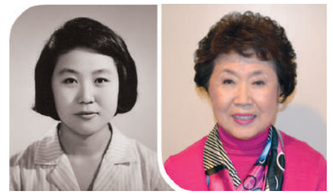
   안 왔고, 그냥 계셨더라면? 글쎄, ... 효도ㄹ 좀 했으려나, 부못님 덜 야속하시게. 그리고, 형제자매 친척 친지 친구 덜 잃었겠지. 그랬으ㅁ, ... 학과장 원장 학회장 학회 이사장, 뭐 그랬(?)을지 ... 그랬다ㅁ, 틀림없이, 술 많이/자 - 알 즐기고, 아마 재미마 - 않이 보며, '게가 천국'으로, 신나게 지냈을.

4. 취미?사방 팔방 구경다니기, 어영버영 놀기. 책?은 '잡식'성, 마치 "치마만 둘렀으면 ... ," 하는식으로, 아뭇책이건. 음악? 흑, 진부스럽다(?)ㄹ지 모르겠으나, ... Mozart, Beethoven, Chopin, Vivaldi, 그리고, 혼자ㅅ춤/스텝을 밟아도 좋은 Good Ol'day Jazz! 영화? (Ye'all out there, 들, 모를터...) There's, once upon a time, "The Singer, Not the Song". 구태여 옮겨보자ㅁ, "하기 나름", 뭐 그런게 있었던. 음식?도, 일컫건대, 다분히 잡식성. 그중, 맛있게 해놓는 돼지불고기가 내겐 일미. 그리고, 진짜 맛있는 'Paella빠에이야'. 헌데, 왜 더러, 정말 맛있는 원조 빈대떡 내음이 때따라 코끝에 오락가락. Hallucinations 중, '헛거ㄹ 맡는'게 그렇게 나쁘다든가, 뭐 그런데. 사람 자아 - ㄹ 빠진 밈상아닌 중년(?)여자.(진부하니, ... 뭔 대단한 특정 '인물'을 묻는거 겠지만.) 장소? Lagos Como/Maggiore/Garda 등, Northern Italy ; and, Costa del Sol, Southern Spain.

5. 건강 비법? 맛있게 먹고, 알맞게/즐겨 마시고, 어어-ㅁ청 많이 걷기. 골프도, 경우따라 가능한대로 굳이비 걷고. (년전, 되게 엎어져 으깨진 무릎수술후 여태 완전ㅎ질 못해서, 헌슨강ㅅ가 따라 늘창/무쩍 걷기에 지장, 아직은 불가.)

6. 학생으로 돌아가면? 후회없이 시잃-건 돌아다니고, 예쁘고 착한 가시내/계집애들, 쭈뼛대지 않고 줄창 꼬시고, 젊은이 재밌게 어울려 놀고, ... , 공부(그때 망난이같쟎게) 다시 아주 여어-ㄹ심히 하고.

7. 그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여든'중, 이역만리 예서 또 몇 '빼어난이'들 열성부려 정성바쳐 하는일에, ... 그저, "... , Great job, ye'all, pals! Bravo - !! " 라고나 할밖엔.



윤정나(PA, 음대 57)

1. 음대 63년 졸업 후 유학, 1964-1966 Nazareth College, Nazareth, KY., 1966-1968 Cincinnati Conservatory of Music, Cincinnati. Ohio, 1969-1971 Peabody Conservatory of Music, Baltimore Md.

   1971-2015 The Philadelphia School District에서 32년간 가르치고 Retire 후 현재 Little Flower Catholic High School for Girls, Part 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온 동기 - 그 당시 Viola 교수가 없어 미국에와 Viola를 전공하여 한국에 다시 돌아갈 희망이었어요.

2.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여 일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Philadelphia,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 job을 얻고 가르치게 된 것이 서울 음대를 나온 큰 이유도 있겠지만 자기가 맡은일에 노력하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방이 먼저 알고 교장선생님의 Supervisor가 나를 인정하여 좋은 학교로 이전시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종 차별 없이, 또한 누구를 알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대가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3. 한국 실정에 마춰 쳇바퀴처럼 그날이 그날인 양 정신없이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선 항상 정신 바짝차리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4.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Europe, 유명한 음악가들이 살고 있었던 곳을 찾아다니며 그들이 살았던 집에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을 때면 마치 내가 천국에 와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5. 시간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걷고 있습니다. 음식은 별로 가리지 않고 먹고싶은 것 잘 먹으며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잠도 잘 자는 편입니다

6. 마지막 숨질 때 별 고통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7. 서울대 동창회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맛이 있어 대단히 흥미가 있사오니 지금껏 해오신 대로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와이 : 송년회

저희는 12월 19일 Waikiki Resort Hotel에서 총회겸 송년회로 17명의 회원이 모였습니다. 식사 후 돌아가며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따뜻하고(하와이는 원래 따뜻하지만) 흐뭇한 시간을 갖었습니다. 오랫동안 하와이 동창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신 이재명(Dr. Bernard Lee) 동문께서 '본토'로 이주하시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나누었습니다. 몇가지 간단한 토의 후 교가제창과 사진촬영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미주전체 동문 한분 한분께 새해에도 일터와 가정에 사랑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낙길(자연대 77) 회장〉

북가주 : 송년회

북가주 총동창회가 지난 20일 플래즌튼 캐슬우드 컨트리클럽에서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60여 명의 동문들은 식사를 함께 나누며 장기자랑 등 즐거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홍경삼 이사장과 이장우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미주총동창회의 자랑스러운 동문 학술상을 받은 임준원 동문에게도 상패를 수여했다. 또 최효원·원미랑 동문에게 봉사상이 전해졌다.

조지아 : 아틀란타 송년회 / 손재옥 회장 아틀란타 방문

'나도 가수다' 수상자들

"내가 올해의 가수왕이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조지아지부(회장 강창석)가 87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및 송년파티를 지난 6일 도라빌 소재 스프링홀에서 거행했다.

이번 파티는 1부 교가제창, 환영인사 및 신입회원 소개, 지난 행사보고, 재무보고, 차세대후원 음악회보고, 기념사진 촬영, 2부 저녁만찬, 3부 가왕전, 게임, 시상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강창석 회장은 환영인사와 더불어 "올해 초 총회로 시작해 봄과 가을의 야유회, 가을 음악회를 거쳐 다시 송년회를 맞이했다"며 "행사가 올 때마다 참석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창회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박민 동문이 주최한 열린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말하며 "한인사회의 음악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념촬영 후 저녁식사가 거행됐으며 3부 순서에서는 15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왕전 '나도 가수다'가 열렸다. 동문회측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 서로가 흥겨운 마음으로 동참해 하나되고 또 후배들이 약진하도록 돕는 기초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동문들과 배우자들의 열띤 경연 가운데 75학번 공영식 동문이 '돌아가는 삼각지'를 프로수준으로 불러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편, 서울대동창회는 2016년 2월 21일 정기총회, 5월15일과 10월9일 야유회, 12월4일 송년회가 예정돼있다. 강회장은 "오늘 80여명 정도가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호응과 참석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손재옥 회장 아틀란타 방문

서울대 미주총동창회 손재옥(가정 77) 회장이 지난 12월 18일 아틀란타를 방문해 조지아 동창회장 강창석 동문부부, 주중광, 주지영 동문, 김만복 동문, 박민 동문, 홍성구 동문부부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의 생산적인 관계를 논의했다.

록키마운틴 : 송년회

2015년 한해를 보내며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2월 12일 오후 5시에 Castle Rock에 있는 송요준 회장댁에서 지역동창회의 금년 총회를 가졌고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운전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도 동문 5명이 준회원이신 5명의 부인들과 참석하여 오붓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에서 보고 및 토의된 사항:
1) 박혜룡 총무가 행사 및 서기보고를 하였고, 김낙제 감사의 감사를 받은 회계보고를 최용문 회계가 한 후 이 보고들을 받아들이기로 가결하였습니다.
2) 우리 동문회는 Colorado 주정부에 2014년 12월 19일 비영리단체 (confirmation No. 9041674)로 등록되었고, 2015년 7 월 5일 Castle Rock 으로 주소를 옮겼으며, 비영리 단체로 매년해야 되는 periodic report를 금년 12월 5일에 하였습니다. Chase Bank 에 은행구좌를 열었으며 우리 은행 구좌를 사용할 때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표를 쓰실 때는 'snuaarmc'로 쓰시면 됩니다.
3) 2016년 정기 총회는 2016년 12월 3일(토요일) 오후에 하기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후에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4) 2016년 6월 12일(일요일)에 우리 동문들의 야유회를 갖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나중에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5) 우리 동창회의 명단을 up-date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동문들께서 박혜룡 총무와 이희삼 부회장께 회원 여러분의들의 최신정보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6) 내년에 있을 "주제 강의를 통한 모임, Golf, 낚시, 사진 촬영과 산행 등"의 모임에는 여러 동문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할 예정이오니 서로 연락하여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7) 우리 동문회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된 비영리 단체이니 여러분께서 지불하신 금액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년 회비 $ 50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8) 내년 6월 24일, 25일 양일간 미주 서울대 총동창회가 Philadelphia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저는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든 동문이 참석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 회원(현회장 ,감사, 총무)들은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불참시에는 Proxy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추신: 1)서울대 총동창회 신문 10월, 11월호가 9부씩 남아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2) 12월 13일에 덴버에서 이대동창회가 있었는데 이 모임에서 서울대 동창회와 함께 학술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우리 동문회 임원들의 동의하에 2016년 3월 6일 오후 4시에 덴버의 Hiro Restaurant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각자 부담이며 제가 맡은 강의 제목은 "만성통증의 치료방법"입니다.

남가주 : 해돋이 모임 / 상대 · 공대 · 법대 · 음대 송년회

해돋이 모임

1월 1일 새해 첫날, 남가주 동문들이 그리피스 산 정상에서 해돋이 모임을 가졌다.

새벽 6시에 천문대 앞 등산로 입구에 모인 동문들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해 뜨기 전이어서 사방은 컴컴하고 어두워서 손 전등을 비추며 걸었다. 그리피스 산의 울창한 숲 속에서 뿜어 나오는 나무들 내음과 신선한 바람이 새벽을 가른다. 산의 삽상한 정기를 받으며 꼬불꼬불한 산 길을 올라 가는 기분이 매우 쾌적하고 상큼하다. 산 길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LA의 야경은, 울긋불긋한 네온싸인과 집들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절경이다. 작년처럼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매서운 추위가 아니고 푸근한 날씨여서 다행이었다.

6시 40분, 산 정상에 도착하여 조무상(법대 70) 동문이 준비한 커피를 마시며 2016년 새해의 복을 전하는 덕담을 주고 받았다. 옆의 다른 한국분들과도 담소하며 서로 복을 빌어 주었다.

6시 57분, 드디어 붉은 해가 지평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힘차게 떠오르는 둥근 해를 바라보며 모두 합성을 지른다. 동문들은 희망의 메세지를 해를 바라보고 전하며 단체 사진 촬영을 했다. 내리막 길은 올라 갈 때보다 훨씬 쉬웠다.

8시, 김병연(공대 68, 수석부회장) 동문이 운영하는 "작가의 집"에 모인 29명의 동문들은 떡국을 나누고,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동문이 참가하길 바란다는 김병연 차기회장의 인삿말과 더불어 "HAPPY NEW YEAR!"를 서로에게 외치며 모임이 끝났다.

〈글, 사진: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상대 동창회(회장 김창욱(상대 79)) 2015년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이 12월 19일 토요일 용수산에서 열렸다. 비가 오고 있음에도 70여명의 동문들이 정해진 테이블을 꽉 채워 분위기를 돋구웠다.

황희준(8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정기총회에서는 조만연(58) 이사장, 김창욱 회장의 인사말씀과, 최고참 선배김재소(50) 선배의 참석자 소개, 사업보고, 골프동우회 보고가 있었으며, 강호석(81) 동문의 회계결산보고에서 2만여불에 가까운 여력의 넉넉한 재정은 타 단과대학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Cully Frize Band의 2부 순서는 경쾌한 음악으로 분위기를 상승시켜 80세 되신 최고 동문님들도 나와서 춤을 추며 "오우~야~" 박수치며 즐기는 모습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가슴 찡한 순수한 모습이었다. Cully Frize Band Member는 양민(공77, 베이스기타), 고정범(법79, 보컬/색소폰), 최응환(상80, 키보드), 황의준(상80, 보컬/색소폰), 채규진(문82, 기타), 김종하(문85, 드럼) 양지훈(상91, 보컬), 최성록(공92, 리드기타), 백양희 (상98, 보컬), 임소영(객원보컬) 등이며 서울대의 유일한 밴드로 그 수준이 상당하다. 정말 멋지다.

강호석(81) 신임회장의 취임 인사에서 " 고령화 되어가는 동창회를 새로운 젊은 동창회원을 찾아 참여를 적극 권장하며,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친목 행사를 마련하겠다." 라며 활기찬 젊음으로 분위기가 바뀜이 전해졌다. 강호석 신임회장은 현재 GSK LLP(회계법인)대표이며 US Metro Bank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황윤석(77)(1000불) 심상은(500불) 김준경(77)(1000불) 3분의 동문님과 그외 다수의 도네이션으로 푸짐한 상품이 많았으며 김종극(76) 전 회장님외 몇 분은 받은 상품을 후배들께 양보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김기형(75) 남가주 전 재무국장은 그림 5점(홍선애 전 미대회장 작품)을 준비하여 선배들께 전달하며 선후배의 친근감을 보여주었다. 후련하고 뿌듯하게 마무리되는 이 송년회에 참석하면 늘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기분이 새롭게 느껴진다.

〈글: 백옥자(음대 71) 조직국장, 사진: 고정범(법대 79) 관악연대 회장〉

공대 동창회가 11일 작가의집에서 5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법대 동창회(회장 채규황)가 15일 오후 6시 옥스포드팔래스 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를 열었다.

음대 동창회(회장 서영란(음대 75)): 지난 12월 8일 한인타운 Wilshire Blvd.에 위치한 JJ Grand Hotel에서는 동창회 총회 및 송년회가 열렸다. 서정화(음80) 동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교가 제창에 이어 참석자 소개가 있었는데, 김창무(음 53), 김광철(음 59), 백정현(음66), 홍유현(음 61), 홍선례(음70), 박혜란(음73), 박인옥(음65), 박영희(음66) 등의 전 음대회장들과 음대 동문 외에 박혜옥(간69, 총동창회장), 김병연(공68, 수석부회장), 서치원(공69, 전 총동창회장), 남종우(공62), 이채진(문55) 등의 동문이 참석하였다. 이어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그리고 신임회장 추천 및 인준이 있었는데, 2015년에 회장을 맡았던 서영란(음75) 동문이 연임하게 되었다. 서영란 회장은 2015년 한 햇 동안,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과 임원들의 수고로 정기연주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고 수익금의 일부는 네팔지진 피해자를 위한 기금으로 씌였다. 2016년에도 더한 후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부 여흥시간에는 제갈소망(음02) 동문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재즈 피아니스트 Jacob Koller가 재즈풍으로 편곡한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과 Jingle Bells였는데, 이 곡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Jacob Koller의 음악이 풍부한 음악적 감성을 통해 독특하고 유려한 피아노 선율로 부활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제갈소망의 연주 또한 스케일이 큰 화려함과 가슴 뜨거운 격정이 함께 흘러 더한 감동을 주어 앵콜을 여러 차례 받았다. 또한 백정현 동문의 감미로운 팝송 연주도 참석자 모두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퀴즈, 댄스, 경품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경품 추첨 1등상에는 김계한(음 90) 동문이 추첨되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설계와 동문들간의 결속을 다짐하며 송년회를 끝냈다.〈글, 사진: 홍선례(음대 70) 편집위원〉

뉴욕 동창회 : 이준행 장학금 수여 / 미대 송년회

이준행 장학금 수여

지난 12월 20일 이준행(공대 48) 뉴욕 골든클럽 회장의 개인 장학재단인 Junee Scholarship Association 장학금 수여식이 있었다. 이준행 특지 장학금은 3회째 서울대 뉴욕지역 송년파티에서 수여식을 가져왔는데, 올해부터 비서울대생은 따로 수여식을 갖게 되었다. 이준행 회장은 비서울대생으로 확장된 개인 장학재단의 의미를 설명하며 글로벌 시대에 부합한 Multiple Language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Katherine A Kim(Univ.of Chicago), Shrisha Maskey(Hunter college), Joseph Pedo(NJIT) 3명의 학생등에게 각각 $2500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특별히, 오랜 우정을 갖고 있는 레스토랑 주인의 특별한 배려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중국 왕실의 만찬을 맛보는 기쁨을 누렸다.

미대 송년회

뉴욕.뉴저지 지역 서울대 미대 동문회(회장 권문웅)가 지난 12일 티넥에 있는 나비박물관 내 아트갤러리에서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동문회원들은 2016년에는 활발한 미술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에 문화적 기여를 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뉴욕동창회 장학금 - 감사드립니다

김영란 (법대 98)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장학생으로 선정된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법과대학에 1998년도에 입학하여 2002년도에 졸업하였고, 한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유학을 와서 Harvard Law School에서 석사학위(LL.M.)를 마친 뒤, 현재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세법 전공으로 박사과정(J.S.D.) 3년차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계속하여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을 꽤 하다가 뒤늦게 다시 공부를 하는 케이스이고, 전공도 순수학문이 아니라 법학이라서, 한국의 여러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미국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국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항상 부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모교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짧은 인사말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반추해 보건대 제에게 모교 선배님들께서 주시는 장학금이 없었으면 넘지 못했을 고비가 참 많았기에 이번 기회에 그 이야기를 들려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진학하면서 혼자 상경하여 여러 어려운 집안 형편상 여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대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그렇게 번 돈은 생활비에 충당하기도 빠듯해서 매학기 백만원의 등록금은 감당하기 벅찬 부담이었습니다.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는 성적장학금은 3, 4학년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기에 1, 2학년때에는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던 와중에, 고 홍진기 선배님께서 운영하시던 '인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졸업때까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민문화재단으로 확대개편된 인혜장학금은 원래 고 홍진기 선배님께서 당신이 어려웠던 시절 당신 선배님의 장학금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며 생전에 대여섯명 정도의 법대 후배들을 조용히 후원하시던 것이 제 입학당시까지 이어지던 것입니다. 인혜장학금 덕분에 어느 정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기에 저는 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저는 학부생때부터 학문에 뜻이 있어서, 학부 졸업과 동시에 법과대학 이창희 교수님 밑에서 세법을 공부하고자 법과대학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원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그리 많지 않았기에 아쉽게도 기대하던 장학금을 받지 못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이창희 교수님께서 법대 및 Harvard Law School을 같이 다니신 법무법인 한얼의 백윤재 변호사님께 개인적인 후원을 부탁하셨고, 백변호사님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셔서 저를 몇 학기동안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공부 중 저는 세법을 제대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실무를 모르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잠시 학업을 멈추고 사법시험에 응시한 뒤 변

호사로 법무법인 율촌에서 금융 및 조세 업무에 종사하다가, Harvard Law School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떠나기 전에 백변호사님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선배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유학도 선배님의 후배로 가게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정말 보람차다시며 너무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의 유학 생활에서도 장학금은 정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 세법 분야의 명성만큼 학비지원 역시 중요한 결정요인이었습니다. 현재 재학중인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는 세법 분야에서 최고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박사과정 학생에게 3년간 학비 전액 및 생활비를 보조해 줍니다. 하지만 4년차때부터는 외부 펀딩을 받아야 하기에 이를 알아보던 중 또다시 서울대 선배님들의 도움을 받게 되어 어깨가 한결 가볍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졸업 후 학계로 나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국제조세 분야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 및 미국에서 보낸 시간들 덕분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자에서 전자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문제를 심도깊게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학문에 열정을 가지고 정진하여, 선배님들의 자랑이자 후배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2016년
미주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김연주(가정대 52) 박자경(가정대 60) 안혜정(가정대 77) 염인숙(가정대 78) 박범순(가정대 71) 제영혜(가정대 71)

- 시카고동창회 장학금 - 감사드립니다

박성진 (물리 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 물리학과 2002학번 박성진입니다. 이번 서울대 시카고동창회 장학금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부를 2006년에 졸업하고 카투사로 2년 군복무 후, 2008년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U of I) 즉 어바나 샴페인 일리노이 대학에서 물리학과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년 반 전, 박사과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당히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물리학과를 4등으로 졸업하고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금을 받았으며, 카투사 경험을 통해 영어도 익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학원의 박사과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저는 서울대 물리학과의 학부 교육이 세계 제일이라 생각했는데, MIT, Caltech, Cornell, Columbia 등 유수의 대학 출신의 동기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냥 주변 누구나 다 나오는 평범한 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는 연구실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단일분자 생물물리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가인 하택집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이 연구실은 매해 몇십 개의 논문이 나오고 그 중엔 Nature, Science, Cell 등 최고 수준의 논문들도 매년 서너 개는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실 학생들도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 수석 졸업생 등 각 국가에서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의 존재는 점점 초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 생물학 수업은 하나도 안 듣고, 화학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생화학이 주로 쓰이는 이 연구실에 오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제게 주어진 과제들은 매우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학부 때 학점 올리는 데만 급급했지 연구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저는 이 낯선 주제들에 대해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매주 있는 지도교수님과 Sub-group meeting이 고난의 연속이었고, 일주일 단위로 재계약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계약직에 붙어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제 연구 초반에 성과가 잘 안 나오자 지도교수님은 하루에몇 시간을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적어도 8시간은 일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지도교수님은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도대체 무슨 수로 Harvard, Stanford에 있는 경쟁그룹들과 경쟁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80시간을 일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주는 문자 그대로,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연구에 투입한 주도 있었습니다. 이러자 성과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달은 더 걸릴 것으로 생각했던 프로그래밍 프로젝트를 일주일 만에 끝내고, 거의 1년 반 동안 질질 끌던 골치 아픈 문제 하나를 2주일 만에 끝냈습니다. 거기엔 물론 하루에 $1500를 쏟아부어 필요한 시약들을 몽땅 사들이는 것과 같은 과감한 결정들이 필요했고, 그런 결정들을 승인해준 제 지도교수님의 결단력과 인내가 핵심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지도교수님의 훈련은 고되었지만, 그 방향은 옳은 것이었고 저는 연구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연구실에서 Nature, Science 등 쟁쟁한 저널에 논문을 쓴 학생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 눈물도 쏟으면서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완성한 실험장비를 통해서 Science 지에 논문이 나오고, 저도 이걸 비롯해 이런저런 저널에 이름을 실으면서 지난 인고의 세월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은 제겐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에 결혼도 하였지만, 제 주변에는 이미 의사 면허를 따고 벌써 아기를 낳은 서울대 물리학과 동기도 있고, 애가 둘이나 있으면서도 Nature에 논문을 쓰고 포스트닥터로 U of I에 온 서울대 물리학과 동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에 비해 나는 지난 세월 뭐를 했던 가하는 자괴감도 간혹 들었습니다. 또 결혼 이후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해 이곳저곳에 장학금 지원 서류를 넣었지만 넣는 곳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저랑 같이 지원했던 아내는 몇 곳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 보면서, 저는 역시 대학원에 너무 오래 붙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아직 제1 저자 논문이 없어서 그런가 하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5년이 되어 미국 온 지 7년이 된 해에, 저와 같이 몇 년을 일하던 포스트닥터가 University of Chicago 즉 시카고 대학 생화학과 교수 자리를 받으면서, 제게 포스트닥터로 오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한편 제 지도교수도 Johns Hopkins 대학으로 옮기면서 연구실 전체가 이사를 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저는 샴페인에 학생으로 남아있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졸업을 해야 했습니다. 졸업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하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 이영우 선배님과 김정수 선배님께 들었던 격려를 떠올리고 시카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에 지원했습니다.

어차피 대학원 후반에 된 장학금이 거의 없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제 아내가 동시에 장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 제 지도교수님에게 보냈는데,

"Congratulations on the well-deserved honor, Seongjin! First of many to come!" 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건 박사 최종심사를 앞두고 지쳐가던 제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 지도교수님도 서울대 물리학과의 제 오랜 선배님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3일에 무사히 박사 최종심사를 통과하고 이번 12월 1일부터 시카고대학교에서 포스트닥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3년 반의 긴 학창 생활을 끝내는 그 마지막 순간에 서울대 시카고 동창회의 장학금이 최종 박차를 가한 것입니다. 동창회 선배님들의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남편이지만 늘 한결같이 내조해준 제 아내에게, 28년 전에 소천한 제 어머니를 대신해 홀로 저를 키운 제 아버지에게,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하는 것에 분명 목적이 있을 걸림을 일깨워준 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지도교수님처럼 뛰어난 학자로 성장해서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이고, 후배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집념(執念)의 컴도저가 되다!

"돌이켜 보면 기쁠때나 슬플때나 항상 내 뒤에 우뚝 서서 나를 지켜준 모교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생동안 서울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 왔습니다." ---임광수 회장

임광수 회장

세상에 태어나서 짧고도 긴 인생에서 많은 업적을 남긴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도 많으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이셨던 임광수 회장님처럼 다양하고도 수 많은 업적을 이루신 분은 아마도 손을 꼽을 정도로 많지 않을 것이다. 회장님은 한국 엔지니어 클럽에서 출판한 '조국 근대화의 주역들' 17인 중의 한 분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나라의 기둥이시기도 하다. 그중에도 특히 서울대 동창회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업적은 우리 모교나 동창회에 매우 다행스럽고 영원히 감사할 일이다. 회장님이 서울대 총 동창회장을 운영하시던 12 년간, 우리 동창회는 거의 1,000 억원의 동창회관, 200 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한 유수한 재단(1,200 억원)으로 발전, 연 29억원의 장학금을 서울대 재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되었다.

회장님은 1928년 청주에서 태어나셨다. 청주 중, 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예과와 공대 기계 공학과에 1946에 입학, 1952년에 졸업하셨다. 1950 - 1952년 6.25 동란 시에는 미8군 사령부와 24 공병단에서 통역관으로 복무하셨다. 교통부 공전국 기계과 근무시 1955년 미 국무부 초청으로 도미, ICA 기술교육과정을 수료 하고 기계기좌로 활약 중, 미국회사인 COSA 무역 한국지사 부지배인으로 발탁되어 재직 중 1958년 부친의 급서로 1927년부터 부친이 경영해 오던 오늘의 임광토건을 인수, 경영해 오고 계신다.

▲ Mrs 윤, 윤상래, 이전구 회장, 임광수 회장, 한테라 가야금, 공대식 부회장 장학회관 로비 임광수 회장 동상(銅像)에서

회장님께서는 아직도 회사에 출근, 2 - 3 시간씩 일을 하고 계신다. 평생을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써 오셨는데, 지금도 아침에 요가를 포함한 운동을 2 시간 반 정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산을 등반하신다.

필자는 회장님을 지난번 '서울대 홈컴잉' 시 동창회 장학회관에서 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고 덕담을 나누었다. "우리 이 장학회관은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것을 진 것입니다!" 로 시작해 빌딩을 짓기 위해 겪은 애로와 고충을 모두 털어 놓으시었다.

"그당시 건축법이 재개발 지역은 30년 이내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구 동창회관은 건축 후 18년 밖에 되지 않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허가 당국과 도시계획 위원들을 어렵게 설득하여 재건축을 했고 서울대 역사를 바로 잡는데도 세계의 50대 명문대학들의 역사를 분석한 '정통성 정체성'이라는 단행본을 발행해 120년이라는 역사를 찾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죠."

회장님은 2002년 3월 15일 부터 12년을 서울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어떤 사안이든지 옳다고 믿으면 반드시 관철시켜 왔고, 일을 추진하면 마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불도저처럼 밀어 부치지만, 의견이 다르든가 주위에 시시비비가 있을 때는 설득과 포용으로 상대를 설복시키신다.' 설득과 포용은 상대보다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져야 가능한데, 회장님은 기억력이 엄청나서 마치 콤퓨터처럼 아는게 많고, 불도저처럼 추진력이 강하다' 해서 '콤퓨터 불도저' = '컴도저' 라 직원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지금은 컴도저라면 임광수 회장님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글:윤상래(수의대 62) 수석부회장, 차기회장〉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general@snuaa.org〉로 보내주세요.

게시판

동창회/동문들의 행사/소식을 알립니다.

1. 고광선(공대 57) 부부 모교방문 후원금 기부

방문후기: 서울 대학교내의 호암 교수회관에서 묵으면서 신축된 관정관 도서관 투어도 했고 서가의 네이밍을 위하여 $2,500을 발전 기금을 통하여 기부하였습니다. 새로 취임 하신 홍성길 도서관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김미향님은 관정관 써비스 쎈터 팀장이 되셨습니다. 총동창회 회장님은 바쁘셔서 사무총장이신 박승희박사를 뵈었고 $2,500을 후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성낙인 총장님은 해외 출장중이시라서 뵙지 못 했습니다. 현재 모금중인 "선한 인재 장학금 이어 달리기"를 위하여 $5,000을 발전기금에 기부했습니다.

2. 이상강 회장 부부 미주총동창회 후원

이상강(의대 70), 김경숙(가정 70) 하틀랜드 회장 부부께서 본 총동창회 후원금으로 5,000불을 보내오셨습니다.

3. 뉴욕동창회 동창회보 발전을 위한 격려금 전달

▲ 민준기 회장, 손재욱 회장, 김정현 편집위원장

12월 6일 송년회에서 뉴욕동창회가 2,000불, 민준기 회장이 1,000불을 동창회보 발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4. 동창회보 발전을 위한 격려금 기부

김창수(약대 64) 논설위원이 동창회보 발전을 위한 격려금 $500을 보내오셨습니다.

5. 조지아 지부 행사계획

A. 정기총회:2/21/2016
B. 야유회: 5/15/2016 & 10/9/2016
C. 송년회: 12/04/2016

6. 남가주 지부 행사 및 계획

A. 정기이사회: 1/15/2016(미정)
B. 정기총회 및 신구회장 이취임식
-일시: 2/06/2016(토요일) 5:00pm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7. 록키마운틴 지부

A. 학술강연회 이대동창회와 공동으로: 3/6/2016
B. 야유회: 6/12/2016
C. 정기총회: 12/3/2016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제25차 전국 평의원 회의

2016년도 제25차 평의원회
6월 25일 토요일(오전 9시), Philadelphia, PA

제5차 Brain Network Symposium
6월 24일 금요일(오전 8시 30분), Philadelphia, PA

'이달의 사진'을 모집합니다.

새해부터 〈이달의 사진〉 이라는 새로운 난을 개설합니다(25면 참조). 경치, 자연, 삶의 모습, 접사 등 장르에 상관없이 동문들과 나누고 싶은 직접 찍으신 고화질의 사진을 원합니다. 매달 우수작을 선정, 소개하고, 년말에 〈올해의 사진〉으로 소개하면서 동문들에게 나눠드릴 동창회 칼렌더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

정계훈 (문리대 55)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는 장기간호(Long Term Care)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건강할 때는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지만 건강을 잃게되면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간호해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자녀들이 자기들의 삶에 바빠 장기적으로 간호할 수 없을때 문제이다. 결국은 가족이 아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남의 도움을 받는데는 많은 비용이 따른다.

Economy of Long Term Care

어떤 간호가 필요한가는 개인의 건강이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고 문화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노화 증상으로 기력을 잃거나 고질병으로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면 간병인을 두거나 노인 아파트, 보양원(Assisted Living Facility)이나 양로원및 안락원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치매, 암, 과 뇌졸증 같은 특수 질병으로 장기간호가 필요하면 특수훈련을 받은 간병인이나 전문 요양원에 입주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음식,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일반적인 보양원이나 요양원이 불편할 수 있다. 대도시(예를 들어 로스앤제리스, 뉴욕이나 워싱톤디시)에는 문화을 공유하는 씨니어센터, 간병인, 전문의원, 노인아파트 같은 자원/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장기간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간당 $20 정도이고, 보양원은 월세가 $3,500-7,000이고, 양노원의 월세는 $8,000이상이다 (Genworth 보고 참고). 만약 간병인을 매일 4 시간씩 1 년간 고용하면 $29,200 (5년이면 $146,000)이 필요하고, 보양원은 최소한 1년간 $42,000(5년간 $210,000)이며, 양로원은 년간 $96,000(5년간 $480,000)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간호 비용이 인플레이션(년간 3%정도)을 가산하면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정부보조 노인아파트는 저렴하고(버지니아 경우 입주자 월수입의 30% 정도) 간병인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시설이 부족하다.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Medicare가 그 비용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데 Medicare는 근본적으로 장기간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Medicare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병원 퇴원 한 후 2개월 간호 비용이나 특수한 경우 아주 한정된 지원을 받는 것이다. 반면에 Medicaid는 저소득자들에게 장기간호 비용을 지불하는데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주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수입이 $2,000 미만이고 집이나 다른 자산이 미약한 저소득자는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사회보장혜택과 은퇴연금을 포함한 년간수입이 $30,000 이상 되고 주택이나 주식같은 자산을 소유한 노인들은 자기들이 장기간호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수입이나 자산이 장기간호비로 고갈되었을 때는 정부보조가 가능하다.

장기간호 기간을 5년으로 잡으면, 간호 조건에 따라 $146,000에서 $480,000이 필요한데 이러한 자금을 준비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그만한 자금을 저축하든가 필요에 따라 주택같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기간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안에 심장마비나 치매와 같은 질병의 내력이 있다면 장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노후할수록 보험료가 높거나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장기간호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55세되는 남자가 3년간 매일 $150 혜택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년간 보험료가 $2,200(매년 5%증가) 정도이다(Kiplinger 자료). 여자의 경우 $3,000 정도이다. 여자들이 보험료가 더 높은 이유는 남자보다 장수하고 치매같은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장기 간호가 더 요구되기 때문이다. 부부가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가입하면 디스카운트 이유로 $3,800 정도로 절감된다.

만약 둘중 하나가 70세에 장기간호가 필요하다면 그때까지 $57,000 이상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고 향후 3년간 (처음 90일을 제외) $164,250의 혜택을 받는다. 장기간호가 85세에 필요하면, 보험료가 $114,000로 늘지만 혜택은 3년간 $164,250이다. 장기간호를 받으면 나쁘지 않은 투자이다. 하지만 장기간호 없이 더 산다면 보험료는 증가해도 아무런 혜택이 없다. 집안에 질병 내력이 없다면 장기보험을 회피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장기간호 비용준비가 필요없다는 말이 아니다. 노인들이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확율이 68%(FCA 참조)나 되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비용이나 삶의 질을 고려할 때 자기집에서 살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씨니어센터가 제공하는 육체적 정서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필요할 때 Meals- on- Wheels이나 간병인 써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워싱톤 중앙씨니어센터 프로그램 참조). 중요한 것은 노후 건강관리에 전력을 다하여 장기간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필자: 올드도미니언대학교(VA) 경영학 명예교수 / 전 버지니아주 치매위원회 위원 / Korean-American Seniors(워싱톤 중앙 씨니어센터 English News Letter) 편집장

서울대에서 A+ 받으려면 "생각을 하지 마라"

강인선 (외교학과 84)

의문·생각 전혀없이 필기해 달달 외우는 서울대 우등생처럼
정해진 답에 얽매여 창의력 발휘 못하는 정답의 역설 벗어나
남이 안 간 길 가야 한국경제 도약할 것

요즘 지인들 SNS에 자주 올라오는 동영상이 있다. EBS가 최근 방영한 다큐멘터리 '서울대A+의 조건'이다. 서울대에서 A+ 학점 받는 학생들의 공부 비결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다.

비법은 간단했다. 교수 숨소리까지 받아적겠다는 각오로 강의 내용을 필기한 후 완벽하게 외워 시험 때 그대로 쓰는 것이다. 필기할 땐 요약도 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교수가 한 말만 쓴다. 거의 강의 대본을 만드는 수준이다. 독창적인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않는 게 한국 최고 우등생들의 공부 비법인 것이다.

2009년 이 연구를 시작한 이혜정 교육과혁신연구소 소장은 최우등생의 공부 비법을 찾아내 다른 학생에게도 알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온 후 배포 계획을 접었다. 연구팀은 두 학기 연속해서 학점이 평균 4.0을 넘은 학생 46명을 인터뷰했다. 이어 서울대생 약 1200명을 조사했다. 필기를 열심히 할수록, 수업 태도가 수용적일수록 학점이 좋았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었다. 문과·이과·예체능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 소장은 이 결과를 지난해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란 책으로 펴냈다.

서울대 최우등생의 A학점 따기 비법 또 한 가지는 '의문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교수와 다른 의견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답안에 쓰지 않는다.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중·고등학생 대상의 학원 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시험을 잘 보려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자기 생각을 하면 정답을 맞힐 수 없다는 것이다.

교수들은 이런 방식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왜 그대로 두는가. 교수 몇 명에게 물었다. 특이한 수업을 시도하면 수강 신청 취소가 속출하다 폐강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한다. 토론이나 발표도 꺼린다. 교수도 평가받는 시대에 똑같이 압력을 받으니, 결국 교수 좋고 학생 좋은 일방적 강의를 택하게 되더라고 했다.

EBS 다큐에 흥미로운 실험이 등장한다. 학생들을 12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폔과 물병, 강아지 장난감 등을 보여준다. 첫 번째 그룹에겐 "이건 폔, 이건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단정적으로 알려준다. 또 다른 그룹에겐 "이건 폔일 수도 있다. 강아지 장난감일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지를 두고 말해준다. 이어 물건 가격을 매겨 비싼 순서로 쓰라고 한다. 그러다 느닷없이 싼 것부터 먼저 쓰라고 한다. 학생들은 난감해한다. 뭔가 지울 게 없을까. 탁자 위에 놓인 고무로 만든 강아지 장난감을 지우개로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낸 학생이 단정적인 설명을 들은 쪽에선 한 명, 모호한 설명을 들은 쪽에선 6명이 나왔다.

여기 '정답의 역설'이 있다. 엘런 랭어 하버드대 교수는 "정답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그 이상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강아지 장난감이라고 꼭 집어 말해주면 생각이 거기서 멈춘다.

교수가 한 말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죽어라고 외는 서울대 최우등생들의 공부 방식은 한국을 똑 닮았다. 한국은 남들의 성공 방식을 찾아 달달 외워 따라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가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런대로 통했다. 하지만 남이 안 간 길, 지도가 없는 길을 가려면 이제 그 방식으론 안 된다.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장후영 PD는 학생들도 이런 공부 방식에 한이 맺힌 것 같더라고 했다. 그런 방식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 왔지만 대학에 와서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건 문제라는 걸 아는 것이다.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키워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공부는 그만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을 만드는 것. 한국이 10위권에서 더 도약할 묘책을 찾는 방법도 여기 맞닿아 있을 것이다.

〈조선닷컴 논설위원〉

나눔 · 배움 · 친목

지부회장단 새해인사드립니다

앨라스카: 윤재중(농대 55) 회장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하여 미주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진력하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동문님들 내내 건강들 하시고 가내 평강과 만복을 빕니다.

워싱턴주: 하주홍(경영대 77) 회장

산, 그리고 호수가 아름답고 기후가 온난한 워싱턴주에서 인사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는 걸 아쉬워하기 보다는 내 인생의 경험에 또 한 해를 보탰다고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느낌이라고, 저보다 어린 친구에게서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때로는 어린 사람에게서 지혜를 배우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열린 마음으로 주변에 감춰진 지혜와 행복을 찾아내 더욱 풍요로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북가주: 임(박)희례(간호 73) 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6년 붉은 원숭이해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기원드립니다.

남가주: 박혜옥(간호대 69) 회장

서울대 동문 여러분, 2015년도 예고 없이 지나가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과 후회로 한해가 지나갔지만 못다한 일들을 다시 계획하고 희망과 포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신년은 모든 분들에게 경사스러운 날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미주 동창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동문들의 친목과 더불어 사회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동문들이 솔선수범하여 각 동창회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주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남가주: 김병연(공대 68) 차기회장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들의 각 가정 마다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남가주에는 2,000여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남가주 동창회는 총동창회 차원의 행사와 각 단과대학, 취미에 따른 여러 동우회, 지역 Club등 많은 모임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활동의 질적 향상과 보다 많은 지역사회 봉사, 미주동창회와 모교발전에 대한 지원과 참여 확대, 그리고, 효율적인 동창회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표준화작업, I.T.사용 극대화를 통한 신속.정확한 회원정보확충등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동문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샌디에고: 최홍수(자연대 87) 회장

2016년에도 지속적으로 번창하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샌디에고 동문회는 많은 선후배님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동문들이 동문회 총무 및 간사로 봉사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총 13명의 동문들(회장, 부회장 3명, 총무 3명, 간사 6명)이 2016년 동문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샌디에고 동문회의 멋진 전통들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성낙길(문리대 77) 회장

미주전체 동문 한분 한분께 새해에도 일터와 가정에 사랑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록키마운틴스: 송요준(의대 64) 회장

록키마운틴 지역 동창회를 대신하여 동문 여러분께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 다가오는 2016년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더욱 크신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 담아 사는 이 사회가 당면하는 많은 변화를 직시해 볼 때,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들과 미국사회를 위해 함께 공헌 할 수있는 지혜를 가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지식과 재능을 소유한 우리 동문들은 겸손히 서로를 도우며 힘을 모을때, 모교, 우리 동문들, 더 나아가 우리 지역사회의 앞날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된 진리에 기초를 둔 여러분의 새해의 하루 하루의 삶이 우리 동문들과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 후손에게 귀한 귀감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네소타: 조해석(공대 84) 회장

자랑스러운 서울대학교 동문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해를 누리시기를 기원 합니다.

하틀랜드: 이상강(의대 72) 회장

동문 여러분! 병신년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틀랜드 지부는 6개주에 퍼져있는 관계로 자주 뵙기는 힘들어도 동문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지역 동창회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모든 미주 동문들께서 가정 화목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휴스턴-최인섭(공대 75) 회장

우리 동문들의 가정과 직장에 큰 축복이 임하며 새해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동창회가 좀더 가까와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정승규(공대 60) 회장

그 동안 동창회를 위하여 함께 하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6년 새해에도 우리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들이 동문 상호간의 친목뿐 아니라 더 나아가 모교와 우리를 낳아준 조국의 명성과 긍지를 더 높이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고 동문가정에 건강과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하이오: 이성우(상대 72) 회장

한 해가 하루같이 흘러가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지난 해는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가져오는 혼동, 또 혼동이 가져오는 불안감 가운데서, 저희 동문들이 모여서 서로 돕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테네시: 백승준(농대 85) 회장

2016년 병신년엔 테네시 스모키 마운틴처럼 웅장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틀란타: 강창석(의대 73) 회장

새해에는 동문 여러분들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문들 간의 친목이 증진되고 서울대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무언가 도움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뉴잉글랜드: 이의인(공대 68) 회장

외국 속담에 "There are no shortcuts to any place worth go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하여 지름길로 가거나 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속담처럼 정말로 이루고자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지름길이 아닌 정도(正道)로 가야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쉬운 길이나 지름길이 아닌 바른 길로 가도록 합시다.

뉴욕: 민준기(공대 59) 회장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동문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년을 돌아보건데 아쉽고도 후회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New Year Resolution을 또 다시 맹서하렵니다. 동문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계획하시는 일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뉴욕: 김도명(농대 70) 차기회장

동문 여러분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셔서 우리 미주동창회보가 좋은 소식들로 가득차기를 기원합니다.

필라델피아: 전방남(상대73) 회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라델피아 지부 동문들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세계의 곳곳에 살고계시는 모든 동문 여러분들께 희망찬 2016년을 맞으시라고 새해인사 올립니다. 올해도 늘 건강하시고 가내 평안하시며, 바라시는 모든일들이 잘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미주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필라델피아지부 동문일동

워싱턴 DC: 장경태(사대 75) 회장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기원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아직 동창회에 참여하시는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 동창회장으로써 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친목중심이긴 하지만, 늘 사회적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이러한 사명을 붙잡고 주요한 사업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여러분, 2016년 새해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시고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워싱턴 지역 여러 선후배 님들에게 새해 인사드립니다.

워싱턴 DC: 안선미(농대 65) 차기회장

서울대학교 워싱턴 지역 동창회가 동문, 모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절대적인 협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동문들과 함께 발전하는 동창회를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창회의 총실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엔 동문님들 모두가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플로리다: 윤기향(법대 65) 회장

"새해에는 서울대 미주 동창회와 각 지부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미주뿐만 아니라 고국에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울려퍼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인환(문리대 63) 전회장

제12대 임기를 마치고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제13대 회장단 임원분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분투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직접 맡아서 해본 경험이 없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의 양을 다루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재정 걱정을 매달해야 하는 고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미주 동문님들이 집단의식에 기초한 단결된 성원과 각자의 회비및 후원금 납부를 해주셔서 2016년 새해에도 서울대 미주총동창회가 대도약을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 미주동창회와 회장단 임원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미주 동문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윤상래(수의대 62) 차기회장

지난 7월에 관악연대세대의 회장이 많은 기대 속에서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우리 동창회는 여러가지 발전을 계속해 오고 있다. 특히 회보를 완전히 우리 동문들의 수고로 발행해오고 있으며, 그 질이 6개월이 지난 지금 완전 궤도에 올라 급속히 향상되었음을 과시하고 있다. 다만 재정면에서는 아직도 고전을 하는데 어제 받은 동창회보를 보니 불과 450명 정도의 동문들이 회비를 내었다. 이는 세계 최고 지성인인 미주 동문들에게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참신하게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자! 동문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나누는(Sharing) 재미가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해 본다.

차임경(가정대 77) 사무총장

2016, 병신(丙申)년은 동양국가들이 모두 사용하는 12 지(十二支) 중에서 원숭이의 해입니다. 원숭이들은 개개인의 뛰어난 머리뿐이 아니라 훌륭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함께 모여서 연결의 띠를 만들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원하는 먹이를 얻습니다. 우리 서울대 미주동문님들, 올해에도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서로의 협력으로 더욱 빛나는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여하는 모두의 동문회를 만들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영혜(가정대 71) 후원회 부회장

병...병신년 첫날 새벽 어둠을 가르고 / 신...신들린듯 단숨에 산꼭대기에 올라 / 년...년시의 첫 해돋이를 떨리는 가슴 열고 바라보며 / 새...새맘으로 올한해의 나를 향해 다짐한다. / 아...아플 사이 없이 건강하게 열심히 운동하고, 푸근한 가슴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 침...침침한 눈이지만 무조건 많이 읽고, 백세시대에 걸맞게 아직 청년이란 맘가짐으로 바삐 이 한 해를 살리라—

[건강칼럼]

의사를 일깨워준 어느 환자 이야기

김동규 (의대 72)

시장에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있다. 의료시장에서는 소비자가 환자고 공급자는 병원과 의사다. 하지만 의료는 나름의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여 일반 상거래와 거리를 두었다. 또한 환자는 내용을 잘 모르는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의사와 병원은 수퍼 갑이고 환자는 을 중의 을이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 들어 의술이 인술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희석되었고, 의사와 환자의 불평등 거래도 많이 줄어들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약 11년 전 30대 중반의 남자가 뇌종양수술을 앞두고 있었다. 여느 때와 같이 보호자에게 검사내용과 영상기록 등을 보여주며 수술 과정과 혹시 모를 위험성을 설명했다. 질문과 대답이 이어진 후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환자는 "모든 것을 의사 선생님께 맡기겠다"며 죄지은 사람처럼 머리를 조아렸다.

다음 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환자는 빙긋이 웃으며 자신이 집필한 책 한 권을 선물했다. 환자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과 선한 얼굴이 기억에 뚜렷이 남았다. 수술 후 환자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글을 쓰며 정상적인 활동을 했다. 하지만 흔신을 다한 투병에도 재발 끝에 약 7년 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의 조그만 사진에서 다시 1년여 만에 그를 만났다. 기사는 젊은 나이로 스러져간 촉망받던 출판 평론가의 1주기 기념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그가 선물로 준 책을 다시 꺼내 보았다. 그 속에 뇌종양 진단 후 두렵고 힘들었던 심정을 쓴 글이 주치의였던 나의 가슴을 때렸다. 이혼해 달라는 아내의 말에 몹시 두려웠으나 깨어보니 꿈임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이야기, 수술을 택한 아빠의 결정을 딸이 지지해 주길 바라는 마음 등에 코끝이 찡했다.

수술 전 아내에게 전한 편지에 "혹여 내가 반편이 되더라도 버리지 말고 잘 돌봐주게"라고 썼고, 딸에게는 "오른팔에 힘이 남아 있을 때 번쩍 안아주고 싶다. 너를 사랑해"라고 적었다.

대개 의사는 청진기와 메스로 상징되지만 의사가 하는 일 중엔 글쓰기도 있다. 특히 수술같이 중요한 의료행위는 꼼꼼하게 문서로 작성한다. 동의서는 법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의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뇌수술의 경우라면 반신불수 혹은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할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의사는 갑의 입장에서 냉정하고 사무적으로 설명할 때가 많고 환자는 을의 입장에서 얼떨결에 동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환자의 머릿속이 평온할 리 없다.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지, 자칫 잘못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 등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친다.

보통사람은 표현하기 어려운 수술을 앞둔 환자의 힘든 마음을 그 평론가의 책을 통해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병과 수술에 대한 딱딱한 설명이 그토록 환자를 압박했다니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설명을 안 하거나 무미건조한 동의서를 받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환자의 처지와 심정을 헤아리는 의사의 따뜻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두 달 전 다시 한 번 신문에서 그 환자 가족들의 소식을 접했다. 잘 정돈된 고인의 서재에서 은은한 미소를 띤 그의 아내와 아들의 사진도 함께 실렸다. 남은 세 식구가 함께 쓴 수필집 『아빠의 서재』를 소개하는 기사였다.

딸의 글 일부다. "엄마가 아빠처럼 우리만 두고 훌쩍 사라져 버릴까 봐, 아직도 나는 무섭다. 가끔 아빠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아이를 보면 울컥 올라온다…. 살짝 말을 걸어 보고 싶기도 하다. 아빠한테 말하듯이,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견디기 힘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남편과 아빠를 생각하며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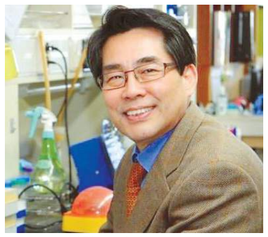
최근 사회갈등과 함께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사랑으로 감싸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원인이 아닐까 싶다. 예로부터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 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신경외과학〉

[인터뷰]

"이제 6대 암 조기 발견 가능해졌다"

암 고위험군 정확도 높인 기술
검진 정확도는 85~95% 정도



김철우(의대 70) 교수

소량의 혈액으로 암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정 단백질을 검출 및 검사해 폐암을 비롯한 간암, 전립선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6대 암을 조기에 검진할 수 있는 바이오 기술이 개발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김철우(사진)교수와 바이오생명과학 전문기업 바이오인프라 연구진들이 약 10여 년간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스마트암검사'는 소량의 혈액을 통해 암환자 군의 혈액 속에서 정상인군에 비해 의미 있게 차이를 보이는 특정 단백질을 검출, 검사해 암의 고위험군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분석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인 특허등록 또는 출원 상태이며 6대 암 검진 정확도는 암 별로 85% 내지 95%에 이른다. 김철우교수로부터 스마트암검사 기술의 개요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스마트암검사 개발 배경은

"암이란 질환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추가로 세포생존에 필수적인 유전자들의 변이가 겹쳐 더욱 악성화를 초래한다. 지난 30여 년간 현미경을 통해 또는 실험실에서 암세포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면서 여러 종류의 단백조각이 정상세포와는 달리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발견됨을 알게 되었고, 이들을 혈액 내에서 효과적으로 검출하여 분석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암환자를 구분하여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2002년부터 약 10여 년간의 연구를 거쳐 혈액검사를 통해 19가지의 단백표지자를 검사하고 그 결과로부터 암환자와 정상인에게서 차별화된 단백 변화의 패턴을 구분하는 통계기법을 서울대 통계학 김용대교수와 협업함으로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게 되었다. 현재 완성된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혈액검사로서 가장 효과적인 암 검진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전의 검사방법과 다른 점은

"지금까지 혈액을 통해 암을 검사하는 방법은 암 별로 특정 단백조각 하나를 검사하는 단일표지자 검사이다. 표지자에 따라 다르지만 암진단율은 30~40% 수준에 머물렀고 양성일 경우 대개 진행성 암이 많아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흔하였다. 우리 연구진은 처음부터 여러 단백조각을 검사하는 다지표검사를 추구하였고 이의 완성을 통해 **폐암, 간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등 6대 암 검출을 한 번의 검사**로 또한 암별로 고유의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 그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영상기기 또는 내시경 검사법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사실 혈액검사와 영상기기 검사 등과는 각기 특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다. 혈액검사만으로는 암의 확진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을 구분한 후 영상기기로 추가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 조직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면 가장 효율적인 암 진단이 될 수 있다. 특히 매우 건강한 정상인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과도한 방사선 노출에 의해 위해를 받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암은 40대 이상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검진을 받아야하지만 경제적, 시간적 이유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스마트암검사를 통해 5~10%의 고위험군을 찾아내고 다음 단계 검사를 받게 하면 보다 쉽고 저비용으로 암환자를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다."

-스마트암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

"지금 세계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사람이 오래 살도록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질병에 의해 고생을 보다 오랜 시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일 수도 있다. 또한, 모든 국가들은 국민의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으로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 추가로 소비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년까지 건강을 유지하여야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충분히 건강수명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부터 WHO에서 각 나라들에 미래에는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예방이나 조기진단중심 의료로 바꾸도록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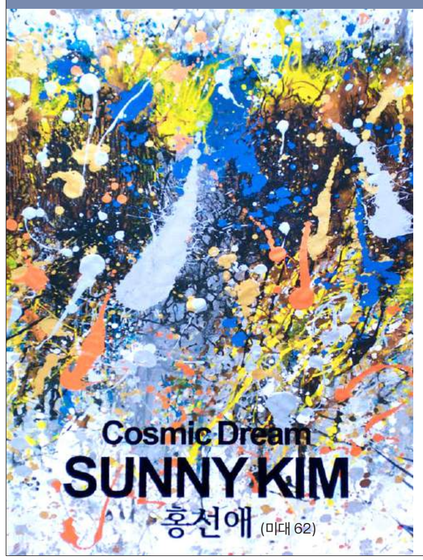
암에 대한 조기진단 위주의 시스템 개발과 활성화도 시급하다. 우리 연구진은 스마트암검사 시스템이라는 시범적인 검사방법을 통해 이러한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가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암도 60~70%는 예방이 가능하다. 즉, 흡연과 패스트푸드 등을 절제하는 것만으로도 암 발생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다. 스마트암검사로 자신의 건강위치를 파악하고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개인 맞춤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해나가도록 도와 건강수명을 늘리고 노후에 왕성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검사의 궁극적 목적이다."

-향후 연구방향은

"이미 10여 년 전에 발굴한 암 관련 표지자 3가지를 임상에서 사용하도록 진단 키트 개발 및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 표지자 들을 추가하여 검사를 수행하면 현재 암 정확도가 약간 낮은 대장암, 위암, 유방암의 경우도 높은 검출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스마트암검사 시스템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미래 예방 및 조기진단 의료에 크게 기여하는 검사법으로 자리매김하여 사람들이 각자의 건강은 자신이 관리하고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검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살바도르 달리와의 만남



김기형 (상대 75)

김기형 동문의 시 ▶
◀ 홍선애 동문의 그림

45년전 그는 나에게 꿈을 심어주었지
그 꿈은 내 마음 예술공간 언저리에서 자라나
어느덧 Cosmic Dream으로 형상화 되었는지….
중국엔 時空을 달리해야하는
우리네 운명이라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속엔 저 멀리 은하수에 두고온
우리 모두의 고향이 있지
永結無情遊 相期邈雲漢

A Union with Salvador Dali

He seeded a dream
in my heart 45 years ago
Germinating around the space
of my mind ever since,
Culminating in "Cosmic Dream"…
Are we not destined to be apart
in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Aren't we all dreaming of
our home in the milky way, yet?
Never forgotten, persisting in our memory

己未年 2015 의 사자성어: 昏庸無道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5년의 사자성어는 **'昏庸無道'** 　　**不在에 가슴 아파했다**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민주화, 학술정보 제공과 대학문

혼용무도는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혼용은 고사에서 흔히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을 지칭하는 昏君과 庸君을 함께 일컫고,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을 묘사한 『論語』「天下無道」에서 유래했으며 각박해진 사회분위기를 꼬집은 '건목수생(乾木水生)'과 목이 마르고서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황급히 서두른다는 풀이의 임갈굴정(臨渴掘井), 또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자유로운 역사연구를 제한한다며 이를 '분서갱유(焚書坑儒)'로 묘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우탄금(對牛彈琴, 소에게 거문고를 탄다) △은감불원(殷鑑不遠, 멸망한 은나라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인누수구(因噎守舊, 고루하고 불합리한 옛 제도와 정책을 인습해 고수한다) 등 비판적인 사자성어들이 2015년의 어지러운 단상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 2015년 올해의 사자성어 '昏庸無道'는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가 추천한 것으로, 당나라 때 문필가 손과정의 『書譜』에서 이 교수가 직접 집자했다.

위기의 책임을 군주, 다시 말해 지도자에게 묻는 말이다. 이를 추천한 이승환 고려대 교수(철학)는 "한자문화권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성어"라고 설명하며 이승환 교수는 "연초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온 나라의 민심이 흉흉했으나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무능함을 보여줬다. 중반에는 여당 원내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사퇴압력으로 삼권분립과 의회주의 원칙이 크게 훼손됐고, 후반기에 들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국력의 낭비가 초래됐다"며 정치지도자의 무능력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선정된 **혼용무도** 외에도 후보에 올랐던 사자성어 △似是而非(14.3%) △竭澤而漁(13.6%) △危如累卵(6.5%) △刻舟求劍(6.4%)은 모두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2015년 한국사회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어들이다. '사시이비'는 겉은 옳은 것 같으나 속은 다르다는 뜻이고 '갈택이어'는 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위여누란'은 달걀을 쌓은 것 같이 위태로운 형태라는 뜻이며 '각주구검'은 판단력이 둔하여 융통성이 없고 세상일에 어둡고 어리석다는 의미이다.

위태롭고 혼란스런 2015년 한국사회, 지혜로운 리더십의

이 같은 교수들의 비판적인 시각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비롯해 한 해 동안 이어졌던 다양한 사건사고에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십상시 파동과 성완종 리스트, 해외 자원비리, 사자방 등 거듭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는 TPP등 국제적인 경제외교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뒷북외교'를 펼쳤고, 노동법 개정이나 열정페이 논란 등에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사고 폐지나 육아대란 등을 야기했다는 평가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모든 다양성의 후퇴다. 대통령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여당은 이에 굴종하고 있다. 모든 국가조직과 사조직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개탄했다.

주: 〈교수신문〉은 3개의 교수단체(전국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 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1992년 4월 15일에 창간한 신문이다. 세 단체는 1991년부터 논의를 통해 교수사회를 대변하는 정론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발간 계획을 세웠다. 창간 당시 발행인은 이영수(사대 교육학 졸업) 교수다.

그동안 선정된 사자성어는 다음과 같다: 2001년 **오리무중(五里霧中)**/ 2002년 **이합집산(離合集散)**/ 2003년 **우왕좌왕(右往左往)**/ 2004년 **당동벌이(黨同伐異)** 하는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한 패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척함을 의미/ 2005년 **상화하택(上火下澤)** 위에는 불 아래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서로 이반하고 분열하는 현상을 비유하는 말/ 2006년 **밀운불우(密雲不雨)** 하늘에 구름만 빽빽하고 비가 되어 내리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 2007년 **자기기인(自欺欺人)**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인다는 뜻/ 2008년 **호질기의(護疾忌醫)**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문제가 있으면서도 타인의 충고를 듣지 않음을 의미/ 2009년 **방기곡경(旁岐曲逕)** 일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로 함을 의미/ 2010년 **장두노미(藏頭露尾)** 머리는 겨우 숨겼으나 꼬리가 드러나 보인다는 뜻/ 2011년 **엄이도종(掩耳盜鐘)**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뜻으로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음을 의미/ 2012년 **거세개탁(擧世皆濁)** 온 세상이 모두 혼탁함을 의미/ 2013년 **도행역시(倒行逆施)** 도리에 따르지 않고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의미/ 2014년 **지록위마(指鹿爲馬)** 사기(史記) 진시황본기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

동창회보에 옥고(玉稿)를 보내시려면

김창수 (약대 64)

매월 한 번씩 받아보는 동창회보는 미국 생활 43년째 접어드는 필자에게 하나의 커다란 기쁨이다. 필자는 60년대 중반 모교의 "대학신문" 학생기자 출신이다. 그 후 50여 년간 고국과 미국에서 잡지, 주간지, 일간 신문 등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써오고 있고 책도 3권을 출판하였기에, 직업 언론인 이외에 필자만큼 수만 장의 원고지를 메워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어떨 때는 편집자 입장이 되어서 개선할 편집 디자인이나 편집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곤 한다.

요즈음 동창회보에 투고하는 동문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고, 편집, 인쇄, 지질 등이 좋아서, 회보를 받아보는 기쁨이 한층 더하다.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더 한다고 동창회보에 실리는 글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전체 글의 분량을 줄여나갔으면 한다.
원래 글은 뺄 것도 없고 더 넣을 것도 없이 적당한 길이로 써야 제 맛이 나게 되어있다. 글을 다 써놓고 나서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더 간단히 압축될 수 있는지, 서론, 본론, 결론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제에서 거리가 먼 것, 꼭 필요치 않은 것 등은 과감하게 빼어 버려야 한다. 투고를 하고 나서 "내가 쓴 글을 감히 누가 잘라"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 글 전체가 짧으면 소제목, 사진, 컷 등을 쉽게 동원 할 수 있어서 독자들의 시선도 쉽게 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읽히는 글이 된다.

둘째, 문장은 가능하면 짧게 쓰는 것이 좋다.
문장은 짧을 수록 이해하기 쉬워진다. 문장을 더 짧게 할 수 없으면, 구두점을 활용해서라도 독자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장이 짧고 논리적인 글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우선 읽기가 쉽고, 한 번만 읽어도 이해가 잘 된다. 한 문장에 주어가 여러 번 나오는 글, 문장의 연결이 부자연스러운 글, 억지로 어렵고 길게 쓴 글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간단명료하게 문장을 써야 한다.

셋째, 미문(美文)이나 명문(名文)을 쓰려고 하는 의식을 버리고, 말하듯이 쉽게 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글을 어렵게 써야 그 글의 깊이와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내용을 어렵게 쓴 글이 좋은 글이고 내용을 쉽게 쓴 글이 나쁜 글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오히려 글은 어렵게 쓰기가 쉽고, 쉽게 쓰기가 더 어려운 것이다.

넷째, 문장과 문단(Paragraph)을 잘 구분해야 한다.
문단에 대한 이해 없이 글을 쓰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서 어떤 글은 전체 문단이 서너 개 밖에 안 되어서 글 읽기에 숨이 가쁘고 , 어떤 글은 한 두 문장 후에 새 문단이 자꾸 나와서 어수선한 느낌을 준다. 한 문단 안에 있는 문장들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묶어져 있어야 한다. 내용이 다른 문장이 나오면, 문단을 바꾸어야 한다. 한 문단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면, 글 전체의 길이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커피나 버터 냄새나는 글을 지양하고, 김치나 된장 냄새나는 우리글로 문장을 써야 한다.
우리말에 쓰이지 않는 영어식 피동형 동사나 미국식 표현을 한글 문장 속에 넣으면, 영문을 번역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글의 맛이 없어진다. 설사 글의 소재나 정보의 원천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참고로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 후 순수하고 고유한 우리말로 새롭게 글을 써야 우리글이라 할 수 있다.

우리글 문장 속에 영자(英字) 스펠링이 많이 나오거나, 영어 단어나 약자가 아무런 뜻풀이 없이 마구 쓰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말의 70퍼센트에 달하는 한자어(漢字語)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 한자에 대한 소양을 넓히는 것이 글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국어사전과 함께 한자옥편도 옆에 두고 늘 참고하여야, 우리글을 제대로 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논설위원〉

[법상식] 재미동포의 한국 재산과 상속

최병선 (외교학과 77)

최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두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다가 최근 배우자와 사별하고는 한국으로 복귀하여 거주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기에 편리하므로 최근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여 지금은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 최 씨에게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 그러던 중 최 씨는 한국에서 새로운 배우자를 맞아 혼인신고를 하였다. 새로운 한국 배우자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

최 씨는 최근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미국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혹시라도 자신과 친생 관계가 없는 한국 배우자의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되었다.

재산으로는 미국 및 한국에 모두 최 씨 명의의 동산 및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만일 최 씨가 사망한다면 그 상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국제사법에 의하면 상속은 피상속인[사망하는 사람]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그 준거법에 따라서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및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의 상속법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그 이중국적 가운데 하나가 한국적이면 한국법에 따르게 되어있다.** 본 사안의 경우는 최 씨가 한국의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이므로 한국법이 준거법이 되게 되어 있다.

한국 민법에 따르면 계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최 씨가 사망하더라도 한국의 자녀에게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에게는 상속이 일어난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유언이 없는 법정 상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유언이 없다면 한국 배우자에게는 1.5, 미국의 자녀에게는 자녀 1인당 1.0의 비율로 법정상속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한국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나중에 한국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한국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의 배우자와 미국의 자녀 사이에는 친생관계가 없으므로 그들 사이에서 상속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국의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은 최종적으로 한국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 미국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이것은 최 씨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우선 유언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즉, 최 씨는 미국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키는 내용으로 유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을 하는 방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나, 어느 경우이건 적법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국 법원은 특히 유언의 요식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정하여진 요건의 하나만 누락되더라도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법상 미국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하였다고 모든 재산이 미국의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법은 "유류분"이라고 하여 유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등의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분의 일정한 한도까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모든 재산을 미국의 자녀에게 상속하는 내용으로 유효한 유언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즉 위에서 본 수치로 계산한다면 0.75까지는 상속재산을 자신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자녀에게 미리 모든 재산을 증여하면 어떨까?** 그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다. 즉, 한국 민법에 의하면, 증여는 상속개시[사망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을 포함시켜서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을 산정하게 되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아가 본 사안에서 최 씨와 미국 자녀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이른바 특별수익으로 보아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대상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유류분의 반환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지 아니할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원하는 계획을 달성함에 있어서 더 불리한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 증여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즉, 위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세 부과대상 재산과는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세 목적상의 판단을 위하여는 별도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지만 이를 매매한 것처럼 등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가지 아니하였다면 세무당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거래로 보아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며, 만일 그 매매대금이 국내로 송금된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미국의 자녀가 그 매각대금을 미국으로 송금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로 하여금 미리 상속재산/유류분에 대하여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한 그러한 포기 약정은 무효이므로 포기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게 된다.

이상은 한국의 국적을 포함한 이중국적자의 경우의 사례이다. 만일 최 씨가 한국 국적을 추가 취득하지 않고 계속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미국의 상속법[주법(州法)]이 적용되어 결론은 위와 달라지게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계한인변호사회(IAKL)회장〉

청년, 세계 무대에 서다 …

서울대학교 인액터스 팀이 '2015 인액터스 세계 대회' 파이널 라운드 무대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인액터스는 세계 39개국 17000여 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다.

서울에서 18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세계 서른여섯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모였다. 10월 14일부터 3일간 열리는 **인액터스 세계 대회**(World Cup)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공헌'을 모토로 활동하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인액터스는 매년 대륙을 바꿔가면서 세계의 청년들을 한데 불러 모은다. 인액터스 세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대표 대학을 뽑는 국내 대회를 거쳐야 한다. "사실 경쟁은 국내 대회가 더욱 치열했어요. 세계 대회는 즐기는 마음으로 나갔죠." 세계 대회를 위해 모인 이들에게서는 열띤 경쟁의식보다 축제처럼 즐거운 화합의 분위기가 감돌았다. 인액터스 세계 대회는 다양한 문화권의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1년간 진행해 온 사회공헌 프로젝트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경쟁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한편의 축제다. 2015 인액터스 세계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한 모교 팀이 역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 최종 네 팀을 뽑는 파이널 라운드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이다. 아시아 국가로서도 돋보이는 뛰어난 기록이다. 함께 파이널 라운드에 오른 영국, 미국, 모로코 팀은 오랜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는 강팀이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학교에서 활동하고, 국내뿐 아니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한 해외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아무래도 외국 대학의 경우 역사가 오래된 만큼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도 있고, 지역적인 특성도 달라요. 대신 저희는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잘 알 수 있고, 좀더 지속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요."

우리는 모두 이겼다 , 'We all Win!'

매일 수십 번, 수백 시간 동안 연습한 이들에게 주어진 무대 위의 발표 시간은 단 17분. 천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펼쳐지는 세계 대회의 마지막 무대는 생각보다 더욱 떨렸다. "국내 대회에서 준비했던 스크립트를 스토리 중심, 말을 건네듯 하는 어투 등이 부각되도록 다시 작성했어요. 발표 화면에서도 사진을 많이 활용하고,저희 장점인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구조가 돋보일 수 있도록 했죠." 대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얼마나 만들어 냈는가를 평가한다. "단순히 문화교류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과정들을 공유하고, 비슷한 일을 해온 세계의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이번 세계 대회에서 서울대학교 인액터스가 선보인 프로젝트는 두 가지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돕는 **'손길'**과 여성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나비'**. 2013년 첫번째 안마 매장을 열 때부터 함께하는 '손길'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선릉에 2호점을 열고 월 매출 1,5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액터스와 함께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나비'는 여성 출소자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쳐 한복을 리폼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사업 안정화에 매진하고 있다. "인액터스는 저희에게 봉사를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생으로서 해볼 수 없는 실전 비즈니스 경험뿐만 아니라 대상자 분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은 정말 소중합니다." 지금 이들이 쌓아나가는 풍성한 이야기는 앞으로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피워낼 수 있는 든든한 토양이 될 것이다. 세상에 온기를 더하는 젊은 청년들의 아름다운 미소가 가을 교정에 퍼졌다.

2015 인액터스 세계 대회 참여 학생
* 좌측부터 순서대로
남석현(경영학과 11학번, 부회장)
김용호(경영학과 11학번, 회장)
장수정(중어중문학과 12학번, 발표팀장)

'Ze' 라는 새로운 단어

미국 하버드대학 인문학부에서 'ze'라는 성(性)중립적 인칭대명사가 공식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하버드대 교지 '하버드크림슨'이 최근 보도했다. 학생카드에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사용됐으면 하는 인칭대명사를 고르는 난이 생겼는데, 선택지에 he(그) she(그녀)와 나란히 성별 개념이 배제된 "ze"가 포함된 것이다.

성적소수자 온라인 사이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ze'는 어디서 유래했을까?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ze'는 독일어 인칭대명사 'sie'에서 유래했다. 발음도 '시'로 동일하다. sie는 쓰임이 다양한데, 한 명을 가리킬 경우 영어의 'she'처럼 여성을 가리킨다. 그러나 복수(複數)를 가리킬 때는 'they'처럼 성별 구분이 없는 대명사가 된다.

상대방을 높여부르는 '당신'에 해당하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때도 남녀 구분없이 사용된다. 〈편집위원〉

이상봉 (문리대 65)

[그림이야기]

치세리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 (ecce homo)

최은관 (상대 64)

1. 모데르나 미술관

오래 전에 안토니오 치세리 (Antonio Ciseri)의 "Ecce Homo" (라틴어로 Here is a man!,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을 어디선가 보았고, 인상적이어서 원화를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어디 있는지, 누가 그렸는지도 몰라서 잊어버렸다.

그러다가 어느 날 Galerie d'Arte Moderna (모데르나/현대 미술관, 피렌체)에 갔다. 이름 자체가 추상적인 현대 미술가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문닫는 시간이 가까워질 때, 해가 질 무렵에 이 그림을 발견했다. 이 미술관은 피티 궁전 (Palazzo Pitti)의 2층에 있는데, 18세기 말부터 1차 대전 이전의 화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우피치 미술관 (Galeria degli Uffizi), 아카데미아 미술관 (Accademia)과 함께 20여개의 미술관 또는 궁전을 Polo Fiorentino Museale에서 관리한다.

우피치 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모데르나 미술관은 사진을 금하고 있다. 이 그림이 걸려 있는 방을 지키는 여자 가드에게 밑져야 본전이다 싶어, 말을 걸어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 물어보니, 물론 대답은 Si가 아니고 No이다. 실망이 되어 머뭇거리고 그림을 감상하고 있자니, 그 여자 가드 안토넬라(Antonella)가 다가 와서, 학자들한테는 연구 목적으로 사진을 허락하는 수도 있으니, 미술관의 허가 담당 오피스에 가보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이탈리아어 실력이 부족하여 이 말을 겨우 알아듣고, 연구 목적으로 사진을 한 장 찍고 싶다고 말했다.

안토넬라의 안내를 받아서 피티 궁전 바깥의 어느 건물에 있는 담당 감독의 사무실로 갔다. 젊은이들은 영어를 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모데르나 미술관의 Sovrintendente (Superintendent, 감독)은 물론 영어를 하지 못했다. 안토넬라가 무어라고 설명한 뒤에, 나는 신청 용지를 받았다. 주소와 성명을 적고 사진의 목적은 연구이고, 또한 절대로 대중에게 찍은 사진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서명하였다. 그 감독은 그 서류를 가지고 현대 미술관으로 가서 사진을 찍고 난 뒤에, 신청서를 가지고 다시 자기 사무실로 꼭 돌아와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 돌아오겠다고 대답하고 다른 여자 가드를 따라서 치세리의 그림이 걸린 방으로 다시 갔다. 날이 저물 무렵이라 미술관은 이미 문이 닫혀 관람객들은 사라졌고 겨우 사진을 찍을 만큼 빛이 그 방으로 들어 왔다. (말할 필요도 없이, 플래시를 쓰지 못하게 한다.) 사진을 찍다 보니, 그림 앞 바른 쪽에 흰 대리석 조각상이 있는 것이 눈에 뜨였다. 이 조각상에서 반사되는 빛이 그림에 비쳤다. 조각상도 덩치가 커서 사진 찍으려고 옮겨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집사람이 얼른 전시된 방 창문의 커튼을 내려서, 반사되는 빛을 일부 줄였지만, 어느 정도 반사되는 빛이 남아 있었다.

치세리의 그림 사진을 열 두어장 찍었다. 따라온 사무원이 신청서를 보더니, 무엇인가 기록을 고치고 자기가 그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 감독에게 서류를 가지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니, 그 사무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 여자에게 신청서를 맡기고 호텔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나서, 오늘은 치세리의 그림을 사진찍게 되어서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사진을 발표할 수 없다면, 아무리 연구하고 글을 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모든 연구는 발표가 목적이다.

아침이 되자, 우피치 미술관 옆 건물에 있는 허가 담당 오피스(Uffizi = office)로 다시 찾아 갔다. 이번에는 허가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감독은 마침 자리에 없었고, 담당 사무원 베라(Vera)를 만났다. 이 여인은 다행히 영어를 했고, 그 감독이 전날 저녁에 신청서를 돌려 오지 않아서 대단히 화가 나 있다고 말했다. 얼른 사과를 드리고, 다른 직원이 내가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하여 그리 되었으니, 감독에게 사과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발표 허가를 얻을 수 있는가 물었다. 베라는 내가 그 전 날에 그 사진을 "pubblicare(publish)"하지 않기로 서약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그런 서약을 했지만,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발표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겠느냐?

베라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느냐? 나는 ecce homo 를 주제로 그린 화가들의 여러 작품을 보았고 (이것은 사실이다), Antonio Ciseri의 그림과 비교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대답했다.

잠시 생각하더니, 베라는 또 다른 신청서를 내밀면서, 직원들이 신청서를 검토한 뒤에, 승인을 받으면 필요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집으로 온 뒤에 며칠 있으니, e-mail로 요금 지불 명세서가 와서, 지시대로 송금했다. 며칠 뒤에 Polo Museale Fiorentino 의 허가 사무소 (ufficio permessi e concessioni)에서 허가서가 왔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허가 번호가 적혀 있다.

Ecce Homo permit, 22 Mar 2012 N. ord. 47P Prot. 28.13.10-3289 Galeria d'Arte Moderna

2. 치세리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

이 그림의 특징은 구경꾼이 빌라도 (Pilate)의 관정에서 재판받는 예수를 바라보는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관정 안에 예수와 함께, 바야흐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여기는 성전을 내려다 보는 안토니아 요새 (Antonia Fortress)안이니까, 바깥의 건물은 조금 밑에 있어야 한다. 대리석 조각의 빛이 바른 쪽 밑에 조금 반사되어 보이지만, 인터넷에 있는 치세리 그림 사진들 중에 이것이 제일 나은 축에 속할 것이다.

몇 백년 전의 예루살렘 지도를 보면, 안토니아 요새는 큰 바위 위에 지었고, 아치로 된 다리를 건너서 내려 가면 성전이 연결된다. 그림에서 빌라도의 인물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의 뒷 모습만 보인다. 바른 쪽에 한 숨 쉬는 듯한 여인은 아마도 빌라도의 아내인 듯. 부탁한대로 남편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절망하는 듯한 표정이다. 신약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외경인 니고데모의 복음에는 프로큘라(Claudia Procula)라고 한다.

군중을 내려다 보는 예수의 얼굴은 군중이나 누구를 탓하는 듯한 기색이 전혀 없다. 사람을 사랑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듯한 얼굴이지만, 자세한 표정은 읽을 수 없다. 신의 경지에 오르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보다.

치세리는 1821년에 스위스에서 태어난 화가인데, 1833 년에 플로렌스로 가서 피에트로 벤베누티(Pietro Benvenuti)의 제자가 되었다. 종교적 주제로 그림을 그렸고 초상화 위탁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의 그림의 특징은 사진을 보는 듯한 스타일이다. Ecce Homo외에 Il trasporto di Cristo al sepolcro (The transportation of Christ to the Sepulchre, 예수를 무덤으로 옮기다)가 있다.

[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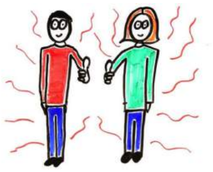
"이것이 1,000년 후 인간"... 6가지 변화는?

"1천년 후 인류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더 검은 피부를 갖게 된다. 열을 방출하기 위해 키가 커지고 마른 체형을 가지게 된다. 또 유전자변이로 인해 눈은 지금보다 더 붉어진다. 인류는 훨씬 더 똑똑하고 멋지고 튼튼하게 되기 위해 나노봇과 결합하게 된다. 이는 반은 기계인 인간이 되게 만든다. 인간은 또 인공적인 유전자 변형을 통해 더 스마트하고 강하고 멋지고, 초인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뇌를 원자단위까지 스캔해 이 정보를 컴퓨터로 옮겨가고 재생산함으로써 죽음을 정복하게 된다."

데일리메일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소재 에이에스에이피사이언스(Asapscience)의 전망과 앞서 나온 앨런 콴 워싱턴대 전산유전학과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 이같은 미래 인류의 변화 모습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래 인류는 기후변화, 인공지능,유전자 변이 등을 거치면서 이처럼 엄청난 신체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1. 나노봇이 인간의 신체로 들어가 결합된다. 인간의 면역능력 강화, 마이크로 수술, 항암능력 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2. 지구온난화로 피부는 더 검게 된다.



3. 천년후 인간은 기후에 대응해 열을 잘 발산시키기 위해 키가 커지고 몸이 홀쭉해지게 된다.

4. 인간은 유전자변이에 따라 눈이 붉게 변화한다. 또한 지금보다 1천배나 더많은 색깔을 볼 수 있지만 소용이 없어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지는 않는다.

1. 인간, 트랜스 휴먼이 된다.
2. 피부색깔이 검게 변한다.
3. 인간의 키가 커지고 홀쭉해진다.
4. 유전자변이를 겪는다.
5. 유전공학 설계에 따른 아기가 출산된다.
6. 인류, 뇌의 디지털화로 죽음을 정복한다.

5-1. 미래의 아기들은 유전공학적 설계에 따라 질병없는 인자를 갖고 태어나겠지만 획획성의 우려를 낳고 있다.

5-2. 설계에 따라 출산되는 아기들이 미래세대 인간들을 보다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예상됐다.

6. 이 디지털개인은 복제를 통해 다음 세대로 재생되는데 1초~1분밖에 걸리지 않게 된다.

5-3. 인간들이 유전공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됨에 따라 자신들의 얼굴을 황금비율의 얼굴 일변도로 바꿔가게 될 것이다.

1. 인간, 트랜스 휴먼이 된다

Asap사이언스는 향후 인간 신체의 반은 생명체, 반은 기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우리인간이 더 이상 생물학적인 신체에 갇히지 않고 기계의 결합체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2. 피부색깔이 검게 변한다

인간의 피부는 지구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더 검게 변한다.

3. 인간의 키가 커지고 홀쭉해진다

또한 인간의 키는 뜨거워진 기후에 대응해 열을 발산하기 쉽도록 더 커지고 홀쭉하게 진화한다.

4. 유전자변이를 겪는다

인간은 DNA의 변이에 따라 눈색깔이 붉게 변화하게 된다. 유전자변이에 따라 인간은 풀이나 독성음식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지금보다 1천배나 더 많은 컬러를 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소용이 없기에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지 않게 된다.

한편 2년 전 앨런 콴박사는 인류가 장차 태양계의 행성을 식민지화함에 따라 눈은 불안스러울 정도로 넓어진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미래 인류는 지구에서 살 때보다 태양광선이 엷은 우주식민지의 환경에서 살게 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눈도 오늘 날의 시각에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바뀐다. 이 때가 되면 인간의 눈은 빛나면서 낮은 조도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현생 인류에게 퇴화된 반월추벽(plica semilunaris)이 복원돼 눈을 양 옆으로도 깜빡일 수 있게 되면서 우주선(宇宙線,cosmic-ray)로부터 눈을 보호하게 된다.

5. 유전공학 설계에 따른 아기가 출산된다

향후 1천년이면 인간들은 유전공학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간은 유전공학적으로 설계된 아기를 출산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류는 스스로를 더 스마트하고 강하고 멋지게 가꿔 나가게 된다. 인류의 얼굴은 강하고, 곧은 코, 완벽하게 좌우균형미를 가진 황금비율 일변도로 바뀌어 가게 된다. 하지만 일부 미래학자들은 이런 유전적 동일성이 진행되면 인간의 다양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미래 인류를 전멸시킬 새로운 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앨런 콴 워싱턴대 박사는 "유전공학이 점점 더 일반화됨에 따라 인간얼굴 모습은 점점 더 인간의 기호에 맞춰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인간의 이마가 뇌 용적 증가에 따라 계속해서 넓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류진화의 핵심은 인간이 필요에 맞게 자연적 진화를 제어하고 신체를 적응시켜 나가는데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콴박사는 2년 전 니콜라스 램과 함께 향후 2만년~10만년 후 인류의 진화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미지를 내놓기도 했다.

6.인류, 뇌의 디지털화로 죽음을 정복한다

ASAP사이언스는 1천년 후 인류는 뇌를 컴퓨터로 옮김으로써 죽음까지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뇌를 원자단위까지 스캔해 그 정보를 컴퓨터로 옮김으로써 신체의 제약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보패턴이 돼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디지털개인이 복제돼 한 세대를 새로 형성하는 데는 불과 1초~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조니 뎁 주연의 영화 트랜센던스(2014)에 등장한다. 또 인간의 뇌를 그대로 복사하는 내용은 한스 모라벡의 '마음의 아이들"(1988)에 나온다.) 〈전자신문인터넷, 사진: ASAP 사이언스〉

[신간] 그러니까 사랑이다

이태상 (문리대 55)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당신이 인생의 약자이거나 인생의 실패자라고 해도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다만 당신이 사랑을 사랑하지 않을 뿐이다.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불행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도, 실패한 인생을 고통스러워할 때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도 사랑은 여전히 당신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고 있다.

사랑은 위대한 자선가가 아니라 당신을 닮은 당신의 그림자다. 그래서 늘 당신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사랑이다.'라는 이 평범한 진리를 이태상 작가가 우리 앞에 던져 놓았다. 세상에 두루 두루 존재하는 많은 에피소드를 접목해 쉽고 재밌고 명쾌하게 풀어 놓은 그의 펜 끝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랑이라는 인생의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된다. 결국 사랑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만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옳다.

사랑이 우리에게 묻는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랑하라. 아름답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다.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다.

▶ 출판사 서평 : 인간을 치유하는 최고의 기술 '사랑'

인간의 문제는 인간만이 풀 수 있다. 삶이 인간의 문제라면 죽음도 인간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인 인생을 성공시키는 최고의 기술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은 완전한 발명품이며 사랑은 인간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생의 대안은 '사랑'이다. 고통은, 미움은, 절망은, 고독은 사랑의 동의어다.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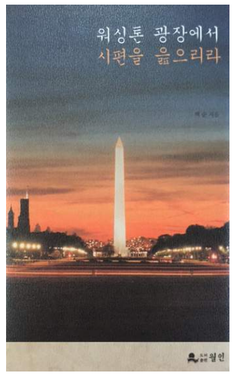
이태상 작가의 평생의 화두인 '사랑'은 진흙탕 속에서 핀 연꽃 같은 순수함이다. 인생을 뒤덮는 먹구름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금강석을 캐내는 법을 찬찬히 알려준다. 지루하지 않게 위트와 유머를 섞어 마치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밌고 명쾌한 문장이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을 이태상 작가는 제시하고 있다. 진리가 없다는 것만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 주며 우리를 진리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준다. 인간과 인간 사이엔 사랑만이 있을 뿐이다. 책 제목처럼 '그러니까 사랑이다'.

▶책속으로 : "아버지 죽지 말아요."

최근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아버지에게 한 마지막 말이란다. 아, 이 세 살 난 어린 아이가 어른 아빠를 걱정하다니, 모든 어른들이 할 말이 없지 않은가! 이 "아버지 죽지 말아요."란 말은 세 살짜리 꼬마 아일란이 온 인류에게 남긴 처절하고 절박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더 이상 아름다운 지구를 더럽히고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제 어린 목숨을 잃어가며 울린 엄중한 경종이었으리라. (34쪽)

정녕 세상살이가 구름잡이처럼 그 실체가 없다 해도, 또 그 실체라는 것이 고체나 액체나 기체로 형상과 형태가 변하지만, 그 원소 H2O그만큼은 변하지 않고 항상 같듯이, 우주의 본질은 언제나 사랑이리라. (166쪽)

[신간] 세번째 신앙시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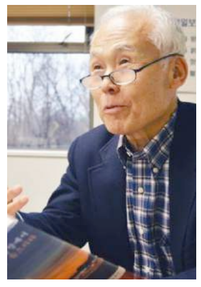


백순(법대 62) 워싱턴버지니아대 교수(사진:전 주필)의 세번째 신앙시집 '워싱턴 광장에서 시편을 읊으리라'가 출간됐다. 168페이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는 군 위안부, 남북분단 등 사회 현안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 때론 비판적인 시각으로, 때론 건설적인 제안과 함께 풀어낸 68편의 신앙시가 수록됐다.

백 교수는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인 다원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며 "시집의 제목인 '워싱턴 광장에서 시편을 읊으리라'는 그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오하이오대,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백 교수는 28년간 연방정부 노동성에서 선임경제학자로 근무했다.

현재는 워싱턴 버지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제학·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다. 문인으로는 해외문학, 자유문학, 화백문학에 시인으로, 한글문학에 수필가로, 조선문학에 문학평론가로 등단한 바 있으며 지난 1999년 첫번째 신앙시집 '그래도 주님사랑 넘치면', 2005년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은혜의 눈송이를' 등 저서를 출간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나두섭 (의대 66)

영어로는 제목이 "Butch Cassidy and the Sundance Kid" 이다. 1969년도 작품으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영화였는데 영어 제목을 주면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한글제목을 주어야 '아, 그거 나도 봤다' 고들 한다. 한국에 있을때 대학 갓 들어간 친구 여동생과 봤는데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나로서는 더욱 잊을 수 없는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1890년대에 미국 와이오밍에서 있었던 Butch Cassidy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Paul Newman 과 Robert Redford가 나오고 여주인공으로는 영화 "졸업"에도 나온 청순한 스타일의 여인 Katherine Ross가 나온다.

Butch Cassidy (Paul Newman역)은 말이 많은 영리한 갱이고 그의 동역자 Sundance Kid (Robert Redford 역)은 총의 명수다. 둘이는 다른 갱단들과 기차를

성공적으로 털고 마을에 가서 학교선생 Etta (Katherine Ross역)를 만난다. 그 여인은 Sundance의 애인이 되는데 Butch도 좋아한다. Butch와 Etta가 집주위를 자전거를 타면서 즐길 때 나오는 노래가 이영화만큼이나 유명한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이다.

두번째 기차를 털다가 잘 안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 Butch는 Sundance와 Etta를 설득하여 세사람이 함께 강도의 천국으로 생각된 볼리비아로 도망가게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성공적인 은행강도가 되었다. Etta의 권유로 농사, 목축 등의 다른 일들을 시도해 보았지만 잘되지 않자 둘이 죽는 것을 볼 수 없다며 Etta는 미국으로 돌아갔다.

결국 경찰에 발각되어 Sundance가 총에 명수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적 열세로 둘다 중상을 입었고 파손된 건물 안에서 둘이 이야기하는 중에 Butch는 다음 행선지는 영어가 통하는 호주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탄약을 얻으러 둘은 밖으로 나가는데 군대까지 동원된 볼리비아 군경의 수없는 총소리가 들리며 이 영화는 끝난다.

갱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비극으로 끝나지만 사지를 같이 헤매는 두 친구의 정은 가슴 속에 오랫동안 메아리 친다. 그들은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예측은 했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서로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려는 두 사람의 의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달의 사진

EXIF: CANON EOS 5 DSLR, 1/250sec, F11, ISO 400, 28mm, Exposure: Manual

'Maligne Lake', Canada Rocky Jasper National Park, **나두섭(의대 66)**

2015년 4년제 대학 교수 '연봉' 살펴보니
모교 교수 연봉 뒤쳐져...

최근 수년간 등록금 동결·인하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급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교수 평균연봉이 1억원 이상인 대학도 2013년 62곳에서 지난해 77곳으로 15곳이 증가한 데 이어 올해도 91곳으로 14곳이 더 늘었다.

최근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년 전국 4년제 대학 전임교수 직위별 보수현황'에 따르면, 전임교원 직급별 평균연봉은 △정교수 9천481만2천원 △부교수 7천576만1천원 △조교수 5천283만9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전임교원 연봉조사는 전국 225개(정교수 219개) 4년제 대학의 본교와 캠퍼스를 별도로 취합한 통계자료다. 이 통계엔 각종 수당과 연구비(급여) 등이 포함돼 있고, 4월 1일을 기준으로 연간 급여 예상액을 취합한 '추정치'다. 이 때문에 전임교원들이 실제로 받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톨릭의대 5억원대, 중앙대·연세대 3억원대 나와 : 직급별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가톨릭대 의과대학(성의교정)이었다. 이 대학은 조사대상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정교수 평균연봉이 '2억원'을 넘었다. 부교수(1억7천518만1천원)와 조교수(1억4천909만6천원) 평균연봉도 모두 1억원을 넘겨 가장 높았다.

정교수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성균관대(7억1천424만8천원)에서 나왔다. 뒤이어 가톨릭대 의과대학(성의교정)이 5억9천894만9천원, 중앙대와 연세대가 각각 3억2천350만3천원, 3억684만원으로 '3억원대 연봉자'를 배출했다. 가톨릭대 성의교정 관계자는 "진료수당(인센티브) 등의 영향으로 급여산정액(추정치)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의과대학과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평균연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연봉 상위 10개 대학 중 정·부·조교수 모든 직급에서 'TOP 10'에 이름을 올린 대학은 △가톨릭대(성의교정) △연세대 △인제대(부산) △포스텍 △성균관대 △을지대 5곳이었다. 가톨릭대(성의교정), 인제대(부산), 을지대는 의과대학, 포스텍은 과학특성화, 성균관대는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으로'고액 연봉'을 기록했다. 아주대는 정교수를 제외한 부교수와 조교수 평균연봉에서 상위 10위로 집계됐다.

대학·직급별 평균연봉 TOP 10

정교수 평균 1억3095만원

1	연세대	1억8293만원
2	포스텍	1억4035만원
3	성균관대	1억3474만원
4	강남대	1억3108만원
5	경희대	1억2836만원
6	한양대	1억2758만원
7	서울에너	1억2408만원
8	한신대	1억2036만원
9	한국항공대	1억2019만원
10	한성대	1억1989만원
77	서울대	1억 563만원

부교수 평균 1억260만원

1	연세대	1억2418만원
2	성균관대	1억1498만원
3	포스텍	1억442만원
4	한성대	1억437만원
5	한양대	9866만원
6	동경대	9804만원
7	아주대	9640만원
8	경희대	9612만원
9	순천향대	9565만원
10	영남대	9542만원
38	서울대	8802만원

조교수 평균 8357만원

1	연세대	9654만원
2	성균관대	9341만원
3	대구교대	8848만원
4	영남대	8055만원
5	아주대	8052만원
6	춘천교대	7963만원
7	포스텍	7975만원
8	한국교원대	7866만원
9	서울과기대	7822만원
10	서울대	7778만원
(전체 225개 대학 중)		

*의과대학제외

의대 제외, 상위 10개 대학 평균연봉 '1억원 내외' : 의과대학(캠퍼스)을 제외한 상위 10개 대학의 평균연봉은 얼마나 될까? 조사대상 대학의 평균연봉은 △정교수 1억3천94만7천원 △부교수 1억260만원 △조교수 8천357만3천원으로 1억원 내외였다. 이처럼 의과대학을 제외할 경우 모든 직급에서 가장 높은 평균연봉을 기록한 곳은 연세대였다. 연세대의 직급별 평균연봉은 △정교수 1억6천293만원 △부교수 1억2천418만2천원 △조교수 9천854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학별 '최고 연봉 교수'들은 보통 얼마를 받을까? 〈교수신문〉 분석 결과, 조사대상 대학의 최고 연봉자들의 평균연봉은 △정교수 1억2천528만9천원 △부교수 9천961만9천원 △조교수 8천493만6천원이었다. 최저연봉자의 평균연봉은 △정교수 6천809만원 △부교수 5천650만7천원 △조교수 3천231만9천원으로 집계됐지만, 의미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게 각 대학 급여담당자들의 분석이다.

우선 정교수의 경우 부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교수로 승진할 경우 호봉가산액이 같은 나이대 교수에 비해 적은 탓에 평균치보다 3천여 만원 적은 6천만원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교수와 조교수는 강의전담교원 혹은 산학협력중점교원 등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정 최저급여인 연 3천만원 전후로 연봉이 책정돼 있다. 〈교수신문〉

[꽁트]

나를 향해 빛나는 별

최정림 (상대 65)

만 60세가 되어 오래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던 날, 나는 가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다.

-인생 구십이라 치자. 나는 초반 3분의 1, 30년은 오로지 부모님 뜻을 따라 살았고, 다음 30년은 가족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나 자신을 위해 살겠으니 그리 알아라!

그로부터 일 년이면 서너 달씩 나 홀로 떠나는 여행벽이 시작되었다. 대부분 거의 오지에 가까운 곳을, 산티아고 순례길 가듯 걷고 또 걷는 여행이었으니…. 사서 고생 고행길이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인간 모범생으로 살아온 내가 무슨 특별히 참회할 게 많아서 그랬던 건 아니다. 무작정 걷다 보면 고통의 절정을 넘어 '러너스 하이'가 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 짜릿함의 마약 같은 중독성에 빠지고 만 것일 뿐.

처음엔 입이 댓발이나 나왔던 마누라도 어느덧 나를 청송하게 되었다. 딴 여자들은 삼식이 할배 땜에 골 아프다는데, 우리 남편님은 일년에 서너 달은 아예 '영식님'이시라네.

예고된 가출 경력 십 년째가 되던 해, 문득 이번엔 일본 올레길 여행이나 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규슈로 떠난 것이 대형 사고(?!)의 발단이 될 줄이야!

길에서 만난 도보여행자 일본 젊은이들과 이 말 저 말 섞다 보니 내 첫사랑 얘기까지 나왔지 뭔가? 하필 또 나의 첫사랑이 일본 처자였으니, 그 애들 눈이 빛날 수밖에.

반세기 전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 퀜팔로 알게 된 그녀와 꼬박 만 3년을 영어로 편지 교환을 했었지. 교복입고 찍은 사진도 보내고, 책갈피에 넣을 고운 단풍잎도 보내고. 편지의 내용도 점입가경 달달해지다가 마침내 뜨거워졌는데. 아아, 목석 같은 나에게도 그런 사랑꾼 시절이 있었구나!

대학에 입학하던 해 한일회담 반대데모가 났다. 한일관계는 악화되고, 그녀가 나를 만나러 서울에 오겠다던 약속도 물거품이 되었다. 아직도 그녀의 마지막 편지 말미에 쓰였던 글귀가 또렷이 떠오른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당신의 목을 끌어안고 뜨거운 키스를 하겠어요!

그때 심쿵 심쿵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니 얼굴이 붉어진다. 그래도 어쩌냐? 시절이 그러했던 만큼, 내 마음의 하얀 등대 불은 꺼지고 걷히지 않을 어둠이 내려 버린

일러스트: 소여정(디자인 09) 동문

걸.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고, 떠나 보낸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 처자들 반응이 어땠냐고? 눈물이 글썽글썽할 정도로 열광적인 감동의 도가니였지. 망각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추억 한 토막에 그런 폭풍 리액션이 돌아올 줄이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ㅇㅅㅎ' 신문에 '무려 50년의 순애보!'라는 제목으로 대문짝만하게 내 스토리가 실린 것이다. 물론 달콤한 조미료를 잔뜩 첨가해서. 맙소사! 미칠 노릇이었다.

게다가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신문사 측에서 내 첫사랑 미찌꼬를 기어코 찾아내서 만나게 해 주겠단다. 내가 아직도 미찌꼬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게 화근이었다. 나도 참 이상하다! 그녀를 미치게 죽도록 사랑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 주소를 까먹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암기력 하나는 비상한 편인데, 오로지 그 때문이었을까?

더 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신문사에서 수소문해 보니,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찌꼬가 그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드디어 세기의 재회가…. 어쩌고 저쩌고…. 기사는 한층 더 부풀려졌다. 내가 한 평생 그녀를 찾아 삼만 리를 헤맨 것처럼.

TV에서 만남을 생중계하겠다고 난리가 났다. 제발 그것만은 극구 사양한다고 손이야 발이야 빌어서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녀를 만나러 도쿄로 행하는데….

갑자기 길섶에서 웬 호호백발 쪼글쪼글한 노파가 튀어나오더니 나를 덥석 껴안고 눈물까지 흘려가며 긴상 감사하무니다, 긴상 감사하무니다, 연방 불을 비비는 것이다. 아니 그럼 이 호호 노파가 설마 설마 미찌꼬??

휴우, 다행히 '나의 미찌꼬'(!)는 아니었다! 현실에 이런 러브 스토리가 존재한다는 게 감동스럽다는 일본 할머니의 격한 환영 해프닝이었던 것. 그 뒤로 이런 해프닝이 몇 번이나 되풀이 되었고. 급기야 나의 호칭은 '긴상'에서, '은사마'와 동급인 '긴사마'로 공식 승격되기에 이르렀다.

'ㅇㅅㅎ' 신문사에서 만나기로 약속된 그 전날 밤, 거울 속의 나를 바라보았다. 반세기 전 사진 속의 준수한 고등학생은 어디로 가고, 머리 벗겨진 늙은이 하나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얼른 바깥으로 나가서 거금을 주고 멋진 모자를 하나 샀다.

*그녀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미리 가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내 옆에는 사진 기자를 비롯 신문사 사람들이 북적북적 진을 치고 있었으나 아무래도 좋았다.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 소리가 내 가슴에 쿵쿵 거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미찌꼬였다가, 미찌꼬였다가, 미찌꼬일 것이었다가…. 문이 닫혔다. 또 다시 문이 열리고 마침내 그녀가 들어섰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게, 한 떨기 수선화 같은 그녀! 무용을 전공했고, 무용수를 하다가 지금은 선생님이 되었다고…. 그러고 보니 우리가 헤어진 지 너무 오래서 나는 그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또 한 번 미치게 놀라운 일은 반세기 전 내가 보냈던 편지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가 가져 온 것이었다. 한시도 나를 잊은 적이 없었다고…. 아아!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지고, 나는 그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 시간이 어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세기의 러브 스토리라고 대서특필된 그 다음날의 기사는 언급하지 않겠다. 우리는 조촐한 만남을 딱 한 번 더 가졌다. 그녀가 마지막 편지에 썼던 대로 '뜨거운 키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그대들 상상에 맡긴다. 다만 그녀와 둘이서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바라본 밤하늘의 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다.

해도 하나, 달도 하나. 하지만 별은 인생의 곡절처럼 하나가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다. 수많은 별 중에 나를 향해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 나에 관한 추억을 반 세기씩이나 고이 간직해 준 내 첫사랑 미찌꼬, 고마운 사람! 그녀가 있어 내 청춘이 빛났었음을 내가 몰랐었구나!

*황지우 시인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인용

최 동문은 2008년 한맥문학 신인상에 단편소설 '사막으로 간 남자'가 당선돼 등단했다. 서울상대 동창회보 '향상의 탑'에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며 활동하고 있다.

〈동문들의 슬픈 소식을 함께 나눕니다〉

1. 고인의 성명, 사진, 소속 대학, 입학 년도 / 2. 주거 도시(지부) / 3. 유가족 소식, 친구의 추모의 글 등(연락처) / 4. 고인의 생전 이야기, 취미 등을 news@snuaa.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비 · 광고 및 업소록비 · 기타 후원 동문 (2015.7 ~ 2016.6)

동창회비:

Alaska
윤재중(농대 54)
하인환(공대 56)
Arizona
박양세(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강경수(법대 58)
강동순(법대 59)
강영호(의대 57)
강재호(상과 57)
강정수(문리 61)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희창(공대 57)
고영순(음대 59)
권기상(경영 72)
권영재(문리 57)
권오형(사대 61)
김경옥(미대 61)
김계윤(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교복(농대 63)
김구자(미대 61)
김규현(법대 53)
김기태(의대 54)
김동호(농대 58)
김병완(공대 58)
김병호(상과 57)
김석홍(법대 59)
김선기(법대 59)
김수영(사대 57)
김순길(법대 54)
김순자(치대 57)
김원경(약대 59)
김영춘(수의 64)
김윤범(의대 54)
김인종(농대 74)
김일영(의대 65)
김정복(사대 55)
김정희(음대 56)
김준일(공대 62)
김창무(음대 53)
김현왕(공대 64)
김희재(사대 63)
나두섭(의대 66)
나승욱(문리 59)
남승재(공대 66)
남장우(사대 56)
노명호(공대 61)
노영준(문리 48)
문인일(공대 51)
문일영(음대 66)
민병곤(공대 65)
민병돈(문리 58)
민병훈(사대 53)
박노면(사대 50)
박병원(의대 49)
박부강(사대 64)
박우성(상대77)
박원준(공대 53)
박인수(농대 64)
박인창(농대 65)
박장경(사대 60)
박찬호(농대 63)
박찬호(자연 81)
박취서(약대 60)
박태호(치대 66)
박홍우(문리 61)
변영근(수의 52)
배동완(공대 65)
배병옥(음대 58)
백소진(문리 55)
백옥자(음대 71)
백정애(간호 69)
성낙호(치대 63)
손기용(의대 55)
손학식(공대 61)
송기성(사대 52)
신동국(수의 70)
신정연(미대 61)
심기련(상대 57)
심상은(상과 54)
안병일(의대 63)
안병협(공대 58)
양승문(공대 65)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염동해(농대 64)
영은민(법대 55)
윤용길(공대 55)
윤희성(치대 65)
이규달(의대 62)
이명선(상대 58)
이문상(공대 62)
이방기(농대 59)
이범식(공대 61)
이상대(농대 80)
이서희(법대 70)
이성숙(공대 56)
이소희(의대 61)
이양구(상대 57)
이연주(가정 52)
이영모(의대 53)
이영일(문리 53)
이원익(문리 73)
이원택(의대 65)
이장길(치대 63)
이재권(법대 56)
이재룡(공대 71)
이정근(사대 60)
이정옥(가정 71)
이정욱(공대 52)
이정화(공대 52)
이종묘(간호 69)
이중희(공대 53)
이창무(공대 54)
이채진(문리 55)
이홍기(공대 62)
이홍표(의대 58)
임동규(미대 57)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과 58)
임정란(음대 76)
임춘수(의대 57)
임화식(치대 59)
장기창(공대 56)
장 준(인문 85)
전낙관(사대 60)
전상옥(사대 52)
전원일(의대 77)
정동구(공대 57)
정예현(상과 63)
정유석(의대 58)
정진수(공대 56)
정현진(간호 68)
정 황(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만연(상대 58)
조상하(치대 64)
조정시(공대 60)
조태묵(사대 60)
주정래(상과 65)
차종환(사대 54)
최경선(농대 65)
최영순(간호 69)
최왕욱(공대 69)
최용완(공대 57)
최종권(문리 59)
한만섭(공대 47)
한홍택(공대 60)
현기웅(문리 64)
현순일(문리 58)
현순석(법대 64)
황동하(의대 65)
황만익(사대 59)
홍병익(공대 68)
홍수웅(의대 59)
Carolina
이달호(사대 46)
이범세(의대 59)
이항열(법대 57)
DC & MD & VA
강길종(약대 69)
강도호(사회 81)
강준희(의대 71)
공순옥(간호 66)
곽근영(사대 51)
권오근(상과 58)
권철수(의대 68)
김내도(공대 62)
김동훈(법대 56)
김명자(법대 52)
김석희(의대 54)
김안정(문리 59)
김영기(공대 73)
김용덕(의대 53)
김진수(의대 60)
김창호(법대 56)
김형민(상대 84)
도상철(의대 63)
문성길(의대 63)
박일영(문리 59)
백 순(법대 58)
서윤석(의대 62)
서희열(의대 55)
석균범(문리 61)
송병준(약대 68)
신용계(의대 62)
안승건(문리 55)
양광수(공대 73)
오광동(공대 52)
오인환(문리 63)
원종민(약대 57)
유덕영(공대 57)
윤경희(공대 57)
이문향(공대 46)
이선구(문리 65)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임창주(공대 55)
임필순(의대 54)
장수영(공대 57)
장윤희(사범 54)
정계훈(문리 55)
정기순(간호 67)
정원자(농대 62)
조남현(의대 64)
조화유(농대 58)
진학송(약대 82)
차임경(가정 77)
최경수(문리 58)
최규식(상과 64)
최정미(사범 55)
한의생(수의 60)
홍영석(공대 58)
홍용식(공대 51)
Florida
김중권(의대 63)
김창익(농대 64)
박창익(농대 64)
안창현(의대 55)
이재덕(법대 60)
송순영(문리 52)
송용덕(의대 57)
전영자(미대 58)
정진묵(의대 50)
조동건(공대 69)
최준희(의대 58)
한기빈(공대 52)
황현상(의대 52)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용건(문리 48)
김영서(상대 54)
오경호(수의 60)
임수암(공대 62)
임한응(공대 60)
정인태(의대 64)
최종진(의대 63)
한 호(상대 62)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창원(공대 49)
Heartland
이상강(의대 70)
Illinois
강화영(문리 50)
고병철(법대 55)
구행서(공대 69)
김갑중(의대 57)
김규호(의대 58)
김사직(상대 59)
김성일(공대 68)
김승주(간호 69)
김연화(음대 68)
김용주(공대 69)
김일훈(의대 51)
민영기(공대 65)
박정일(의대 61)
박용순(의대 53)
배영섭(의대 54)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신석균(문리 54)
이덕수(문리 58)
이상오(문리 61)
이시영(상대 46)
이용락(공대 48)
이윤모(농대 57)
이정일(농대 57)
임이섭(미대 54)
임현재(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장 홍(문리 61)
전경철(공대 55)
한의일(공대 62)
한재은(의대 59)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김재석(의대 67)
신동화(문리 55)
이상일(의대 54)
임병훈(의대 54)
조문희(공대 56)
조병권(공대 64)
최병두(의대 52)
하계현(공대 64)
Minnesota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대 53)
남세현(공대 67)
성욱진(치대 87)
송창원(문리 53)
왕규현(의대 56)
Nevada
김택수(의대 57)
최영식(법대 59)
최창식(의대 61)
New England
고일석(보건 69)
김문소(수의 61)
김선혁(약대 59)
라찬국(의대 57)
박종건(의대 56)
송두영(공대 75)
윤상래(수의 62)
이의인(공대 68)
이희규(공대 69)
NJ & NY
강영선(공대 50)
강에드워드(사대 60)
곽노섭(문리 49)
권문웅(미대 61)
권영국(상과 60)
권용구(상대 ?)
김경순(상대 59)
김광현(미대 57)
김규화(상대 63)
김동진(약대 56)
김명철(공대 60)
김문경(약대 61)
김봉련(사대 54)
김석식(의대 58)
김성수(상대 64)
김성현(약대 55)
김완주(의대 54)
김용술(상과 56)
김용연(문리 63)
김윤수(상대 50)
김정은(의대 77)
김정희(간호 69)
김창수(약대 64)
김현중(공대 63)
김희자(미대 66)
남궁원(미대 66)
박수안(의대 59)
박순영(법대 56)
박은규(약대 72)
박진우(상대 77)
박현성(약대 60)
방준재(의대 63)
배명애(간호 47)
배상규(약대 61)
서병선(음대 65)
선종칠(의대 57)
손경택(농대 57)
송기인(의대 60)
송봉문(공대 62)
송세엽(문리 51)
송영순(사대 60)
신석대(사대 58)
심영석(공대 76)
안재현(상대 60)
안홍원(농대 61)
양명자(사대 63)
염극용(의대 54)
염극용(의대 54)
우상영(상과 55)
유영호(의대 52)
유재섭(공대 65)
유택상(문리 58)
윤봉균(사범 54)
윤순철(사대 44)
윤영섭(의대 57)
이강홍(상과 60)
이경림(상대 64)
이경태(공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성구(약대 56)
이영숙(간호 56)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이종환(법대 51)
이중춘(공대 56)
이지현(문리 73)
이천희(간호 53)
이한수(의대 55)
이행순(미대 60)
임충섭(미대 60)
장대욱(음대 57)
장영자(간호 68)
정창동(간호 45)
조아미(음대 61)
조정현(수의 58)
조종수(공대 64)
차국만(상대 56)
이명진(공대 61)
이영호(의대 56)
이영희(의대 63)
이재규(약대 67)
이희규(공대 69)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Rocky Mt.
김요준(의대 64)
박희진(농대 78)
성성모(사범 67)
성재호(공대 66)
안세현(의대 62)
이석호(공대 66)
이은설(문리 53)
이종근(문리 50)
표한승(치대 58)
유광현(문리 58)
Tennessee
김경덕(공대 75)
서감식(공대 70)
Texas
강영배(수의 59)
고영자(치대 63)
김기준(공대 61)
김대훈(공대 57)
김순주(치대 95)
김영우(공대 55)
김정영(사대 66)
박유미(약대 62)
박석규(간호 57)
박영규(사대 58)
배성호(의대 65)
서재진(공대 47)
손재욱(가정 77)
송영두(의대 56)
신상재(수의 59)
신성식(공대 56)
신희진(공대 60)
심희진(공대 58)
안재현(공대 60)
오진석(치대 56)
윤경숙(문리 59)
윤정나(음대 57)
이규호(공대 56)
이상봉(문리 65)
이성숙(가정 74)
Utah
김동호(농대 58)
김석식(사대 55)
김인갑(공대 57)
김정열(치대 61)
김종원(문리 82)
김진우(공대 62)
김한중(공대 56)
박형준(공대 87)
배성호(의대 65)
서재진(공대 47)
신철영(문리 64)
안세현(의대 62)
Washington
김동호(농대 58)
김석식(사대 55)
김성열(치대 61)
김용창(공대 64)
송 준(공대 55)
윤태근(상대 69)
이동림(의대 52)
이회백(의대 55)
홍영옥(음대 54)

후원회비:

Arizona
박양세(약대 48) 200
California
강정수(문리 61) 200
김병연(공대 68) 300
김 용(수의 63) 500
박범순(가정 70) 100
박자경(사대 60) 200
박종수(수의 58) 1,000
백옥자(음대 71) 200
양승문(공대 65) 200
안혜정(가정 77) 100
염동해(농대 64) 500
이명선(상대 58) 500
임춘수(의대 57) 200
전상옥(사대 52) 500
제영혜(가정 71) 300
전원일(의대 77) 200
하기환(공대 66) 500
황만익(사대 59) 200
Colorado
송요준(의대 64) 200
Hawaii
김승태(의대 57) 200
김창원(공대 49) 200
Heartland
이상강(의대 70) 5,000
Illinois
최희수(문리 67) 100
이용락(공대 48) 300
DC & MD & VA
강길종(약대 69) 200
김진수(의대 60) 100
권철수(의대 68) 200
이선구(문리 65) 200
NJ & NY
NY Chapter 2,000
김명철(공대 60) 200
김창수(약대 64) 500
분석면(의대 52) 200
민준기(공대 59) 1,200
이강홍(상대 60) 500
조정현(수의 58) 125
최한용(농대 58) 200
Ohio
최인갑(공대 57) 200
Oregon
김상순(상대 67) 200
Pennsylvania
김국간(치대 64) 200
김금자(간호 63) 200
김순주(치대 95) 200
김종휘(약대 54) 200
송영두(의대 56) 200
이성숙(가정 74) 300
전무식(수의 61) 200
전방남(상대 73) 100
지흥민(수의 61) 200
정학량(약대 56) 260
손재욱(가정 77) 25,000
Texas
진기주(상대 60) 200
Utah
김명혜(미대 77) 500
Virginia
박평일(농대 69) 300
백 순(법대 58) 200
서윤석(의대 62) 200
Washington
김성렬(치대 61) 200

Brain Network 후원금:
한재은(의대 59) 500

모교발전기금:
강재호(상대 57) 200
김순덕(간호 61) 500
임영자(간호 61) 500
정명숙(간호 61) 500

Golf 후원금:
이전구(농대 60) 500
NE Chapter 100

업소록 광고:
김순주(치대 95) 240
김일영(의대 65) 100
김장수(약대 64) 240
박희진(농대 78) 240
신동국(수의 76) 100
이경림(상대 64) 240
이종묘(간호 69) 240
이준영(치대 74) 100
이상대(농대 80) 120
이영일(문리 53) 400
이재덕(법대 60) 240
이재원(법대 60) 200
주기복(수의 68) 240

디자인 광고:
김광호(문리 62) 9,000
김인종(농대 74) 1,000
김장수(약대 64) 300
김혜정(문리 82) 2,200
분당서울대병원 400
국제진료센터
유재환(상대 67) 1,000

Website 광고:
김혜정(문리 82) 500
K-Shopping 500
JG Business Link International, Inc. (이원로) 500
윤상래(수의 62) 400
이전구(농대 60) 1,500
임낙균(약대 64) 1,500
이승훈(상대 74) 1,800
최정웅(공대 64) 500
차민영(의대 76) 1,000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동창회비(1년 75불)와 각종 후원금으로 동창회보가 발행되며 미주 동창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IRS Tax Exempt 번호- Federal TIN: 13-3859506

미주 동문 업소록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CPA 김재영 공인회계사
김재영 (농대 62)
Tel.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신대식 (상대 60)
Tel.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무 강정옥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Tel.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 (사대 73)
Tel. (213) 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el. (213) 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 (상대 81)
Tel. (714) 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el. (213) 739-5700, (714) 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 (인문대 85)
Tel. (818) 772-2811, (213) 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el.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el.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엔지니어링 컨설팅/ 건축

Lee & Ro, Inc.
노명호 (공대 61)
Tel.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 (상대 56)
Tel.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el.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 / 약국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el. (213) 386-5002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drcchung@yahoo.com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el.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www.beverlycardiology.com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Tel.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el.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치과

배윤범 치과
배윤범 (치대 69)
Tel. (213) 385-1233
3540 Wilshire Bl. LA, CA 90010
michaelyoonbae@gmail.com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el. (408) 732-0493
877 W.Fremont Ave.#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el.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yahoo.com

운송 / 유통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 / 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Tel. (562) 692-0600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우주개발 / 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el. (714) 952-2240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Link TV Media
김원탁(공대 65)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Tel. (818) 768-5494 Fax. (818)768-5040
linkboxusa@gmail.com
www.linkboxusa.com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el.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el. (909) 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el.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el.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Kenneth T.HAAN & Associates, APLC
한태호 변호사
Tel. (213) 639-2900, Fax. (213) 639-2909
3699 Wilshire Blvd. Ste.860 LA,CA 90010
www.haanlaw.com

부동산 / 클리닉

Teamspirit Realty
Jennie Lee 이종묘(간호대 69) Realtor
Tel. (714) 396-062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jennieclee@gmail.com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Tel. (909) 882-3800(B), (714) 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리테일러 / 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Tel. (213) 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el. (818) 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비영리법인 해양 극지에너지

ISOPE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and Polar Engineers
P.O. Box 189, Cupertino, California 95015-0189
Jin S Chung 정진수
Ocean, Arctic, Energy
www.isope.org, jschung@isope.org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 (간호대 72)
Tel.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정지선(상대 58)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Tel.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GA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Tel. (404) 579-8282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NV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 (치대 66)
Tel. (702) 384-2828, (702) 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el. (503) 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광고문의는 전화
(484) 344-5500

NY / NJ (뉴욕 / 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김창수 (약대 64)
Tel. (212) 760-1768, (917) 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el.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el.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최영태 (문리 67)
Tel. (212) 695-0206
13 E 30th St. 2FI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el. (718) 995-7060
147-38 182nd St.Jamaica, NY 11413

건축 / 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 (법대 60)
Tel. (201) 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Tel. (347) 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D
Great Neck, NY 11021

MD·VA·워싱턴 DC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el. (301) 220-2828, (301) 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I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 (농대 69)
Tel.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el. (703) 327-2797
25492 Carrington Drive, South Riding, VA 20152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Tel. (703) 663-8400(O), (703) 785-8467(C)
7023 Little River Tpke, #350,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el. (301) 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el.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 (수의대 68)
Tel.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el. (610) 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Timothy Haahs & Assoc.
손재옥 (생활과대 77)
Tel. (484) 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편집후기] 모든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로 보내주세요.

정 주필님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 얼떨결에 편집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첫 신문을 만들었는데 죽마고우인 LA에 있는 한 동문 친구의 상당히 기분나쁜 신문평을 듣고 되게 화(?)가 나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여섯번째 신문을 우송했네요. 일곱번째 신문(1월호/2016) 편집회의를 손희장님 댁에서 지난 화요일(12/29일)에 마치고 조촐한 송구영신 PARTY(사진)까지 마치고 보니 참 시간이 빨리도 가는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 미주 여러 동문들로부터 우리 동창회보에 대하여 진심어린 칭찬과 격려의 말씀들이 답지하고있다 하니 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뻔했습니다. 신문의 품격이 한층 높아지고 내용도 더욱 알차게 되었고 그리고 회보의 Design이 많이 향상 되었다는 평들입니다. 회장님, 편집장님, 주필님 그리고 여러 편집위원님들, 우리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지만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남은 일년 반의 여정을 더욱 열심히 충실하게 마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덕준〉

이번호에 각 지부회장님들의 새해인사를 모아 보았다.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 낸 **백옥자** 조직국장에게 감사드린다.

남가주 어느 동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말씀인즉슨, "오늘 아침 동창회보를 받아들고 지금껏 두시간동안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읽다"가 전화를 하신단다. 동창회보를 매일 매일 기다리게 된다고 하신다. 특히 이번 12월호를 읽으며 "우리의 이웃을 향해 가지게 되는 여러가지 나눔의 글들을 읽으며, 내가 이런 동창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진다"라며 수고에 감사를 표하신다. 이런 인사를 들을 때마다, 송구스럽고 앞으로의 책임이 더욱 막중함을 느끼게 된다. 그럴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겠다는 다짐이 새롭곤 하다. 뭔가를 기다린다! 란 말은 꿈이 있다는 말이고, 희망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동창회보가 동문님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 넣는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그런 꿈이 하나로 모아져 더 아름답고 더 재미있는 동창회보가 매달 펼쳐지는 한 해를 소원하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편집장〉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

성명 :		**단과대학 및 대학원 :**	**입학연도 :**
주소 :		**전 주소 :**	
업소 이름 :		**업소 주소 :**	
전화 :		Email :	
동창회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 연 $200 ☐ 연 $1,000 ☐ 연 $500 ☐ 기타 $	☐ $75 (1년: 2015.7~2016.6) ☐ $75 (1년: 2016.7~2017.6)	☐ $240 (2015.7~2016.6) ☐ $240 (2016.7~2017.6)	☐ Brain Network 후원금 ☐ 모교 발전기금 ☐ 종신 이사회비

보낼 곳 : SNUAA-USA,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USA **Tel:** 484-344-5500 Ext 304 **Fax:** 484-342-0222 **E-mail:** general@snuaa.org

지불 방법 : Card **또는** Check / Pay to the order of '**SNUAA-USA**'

Visa( ) Master( ) American Express( ) **기타**( )	**전화** 484-344-5500 Ext 302( ) or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	Date :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서울대 미주 동창회 조직 임원단

제13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오인석(법) · 이용락(공)
오흥조(치) · 이영묵(공) · 이전구(농) · 송순영(문) · 김은종(상) · 오인환(문)

명예회장 : 오인환(문)

제13대 회장: 손재옥(가정)

수석 부회장(차기 회장)	윤상래(수의)		
후원회 부회장	제영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하용출(문)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황선희(공)		
고문	전방남(상) · 고병은(문)		

집행부 : 사무총장 차임경(가정)

총무국장	심희진(음)	사업국장	한중희(공)
조직국장	백옥자(음)	섭외국장	박형준(공)
재무국장	이성숙(가정)	특별사업국장	허유선(가정)
IT개발위원장 (Webmaster)	김원영(미)	사무장	이제니

회보 : 발행인 손재옥(가정)

편집위원장 | 김정현(공) 주필 | 정홍택(상)

편집위원 | 김진우(공) · 심희진(음) · 이상봉(문) · 이성숙(가정) 정덕준(상) · 정태광(공) · 지재원(사) · 차임경(가정) 황선희(공) · 허유선(가정) · 현명억(공) · 홍선례(음)

편집/디자인 | 승보현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고병철(법) · 김일훈(의) · 김용헌(경) · 김창수(약) 민경훈(법) · 유재풍(법) · 윤상래(수의) · 이석구(문) 이원영(정) · 이채진(문) · 장석정(법) · 정홍택(상) 조동준(의) · 차민영(의) · 최용완(공) · 하용출(사)

회칙 위원회 :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 | 김병연(공) · 김용헌(상) · 서중민(공) 이강원(공) · 이민언(법) · 함은선(음)

인선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4명 미정

모교 발전 기금 위원회 : 위원장 오인환(직전회장)

손재옥(현 회장) · 윤상래(차기회장) +4명 미정

감사 : 주기목(수의) · 박영철(농)

서울대학교 미주총동창회

제25차 전국 평의원 회의

2016년도 제25차 평의원회
6월 25일 토요일(오전 9시), Philadelphia, PA

제5차 Brain Network Symposium
6월 24일 금요일(오전 8시 30분), Philadelphia, PA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연락처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회장	박혜옥(간호 69)	818.606.6503	jennypaek2@gmail.com	Feb-Feb
	차기회장	김병연(공대 68)	213.923.0907	byeongk@gmail.com	
북가주	회장	임희례(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김종수(공대 74)	484.480.0506	jskim0524@comcast.net	
뉴욕	회장	민준기(공대 59)	845.270.0451	joonmin1@yahoo.com	Jan-Dec
	차기회장	김도명(농대 70)	917.207.5949	sepo22@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이의인(공대 68)	781.862.5270	euiinlee@verizon.net	Jul-Jun
	차기회장	홍지복(간호 70)	401.782.8000	hongjeebock@gmail.com	
달라스	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록키마운틴스	회장	송요준(의대 64)	970.396.0616	yojunsong@me.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haeseokcho@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성욱진(치대 87)	651.492.5643	seong001@umn.edu	
샌디에고	회장	최흥수(자연대 87)	858.342.0245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차기회장	서정용(공대 81)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시카고	회장	정승규(공대 60)	773.562.0677	s_jung@att.net	Jan-Dec
	차기회장	한경진(상대 59)	847.858.7556	jimkhahn@gmail.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 56)	520.271.2601	younhwan_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카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77)	503.587.0447	daehyunbaek@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이성우(상대 72)	614.294.2453	rimshake@ameritech.net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안선미(농대 65)	347.776.0304	sunmi_ahn@yahoo.com	
워싱턴주	회장	하주홍(경영 77)	402.631.3567	jh.ha@live.com	Jan-Dec
	차기회장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mrmsft@hotmail.com	
유타	회장	김한섭(의대 53)		hanseup@ece.utah.edu	Jul-Jun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s5@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이운파(음대 76)	404.889.7279	woonpa@gmail.com	
중부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전방남(상대 73)	610.220.3461	jeonbana@gmail.com	Jul-Jun
	부회장	유영진(경영 85)	215.307.0001	yxy23yoo@gmail.com	
플로리다	회장	윤기향(법대 65)	561.962.5185	yuhn@fau.edu	Jul-Jun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회장	이상구(자연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차기회장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승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성낙길(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차기회장	전수진(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mpcsg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장영준(농대 83)	913.544.2933	yjcdds@gmail.com	
휴스턴	회장	최인섭(공대 75)	713.952.8989	inchoi@msn.com	Jan-Dec
	부회장	구자동(상대 70)	713.206.1942	jykey2003@yahoo.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Jan-Dec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중기(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Paper Russells
eco-friendly
STATIONERY & GIFTS FOR PET AND NATURE LOVERS
MADE IN U.S.A.
김명혜 (미대77)
WWW.PAPERRUSSELLS.COM
INFO@PAPERRUSSELLS.COM
P. 866.517.7738
F. 801.479.4663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 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서울대 동문 10% 할인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예쁠 때 가고 싶은 사람
운명보다 노력을 믿는 사람
만남에 더 신중한 사람
아직 내 사람을 못 만난 사람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 213-383-2525
NY 212-947-2525
결혼해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 ccm 업계최초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CCM 인증이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착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

WESLEY & ASSOCIATES, CPA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usiness Services
Small Business Accounting
Payroll
Part-Time CFO Services
Audits - Reviews - Compilations
Cash Flow Management
Bank Financing
Business Valuation
Strategic Business Planning
Succession Planning
New Business Formation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nal Controls
Litigation Support
Tax Services
Tax Preparation
Tax Planning
Tax Problems
Calculators | Client Portal | Tax Due Dates | Financial Guides
회계사이기 전에
귀하의
사업파트너입니다.
WESLEY & ASSOCIATES, CPA
윤태우 회계사
Wesley Yun, CPA
● 세무보고
● 장부정리
● 급여체크 발행(Payroll Service)
● 회사설립(Corporation & LLC)
● 감사대변(IRS Audit)
● 경영컨설팅(Financial Consulting)
● 비지니스 가치평가(Business Valuation)
Atlanta, GA Office
3700 Crestwood Pkwy, Suite 380
Duluth, GA 30096
Tel (770) 451-1850
Fax (678) 380-6453
info@wesleycpa.com
Nashville, TN Office
4711 Trousdale Dr, Ste 206
Nashville, TN 37220
Tel (615) 309-1317
Fax (877) 309-2597
info@wesleycpa.com

2016

Happy New Year!

미주 총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LEE & RO, Inc.

LEE & RO, Inc. provides high-value consulting, planning,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services for governmental, public and design-build entities.

WWW.LEE-RO.COM

노명호 (공대61)

M. Steve Ro, P.E.
President / CEO